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문화소외계층] 수요조사 연구

/ 2015. 12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문화소외계층] 욕구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주 관 기 관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정 무 성 (숭실대학교 교수)
 연 구 원 : 최 상 미 (숭실대학교 교수)
 김 정 선 (숭실대학교 박사과정)
 정 은 주 (숭실대학교 박사과정)
 한 송 이 (숭실대학교 박사과정)
 이 혜 인 (숭실대학교 석사과정)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개요	6
	제2절 :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수행체계	8
	2. 연구 범위 및 방법	9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 문화복지	
	1. 문화복지의 개념	11
	2. 문화복지의 필요성	13
	3. 문화소의계층	14
	제2절 : 문화복지정책 전개과정 및 현황	
	1. 국내 문화복지정책 전개과정	16
	2. 국내 문화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19
	3. 해외 문화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25
	제3절 : 문화복지정책으로서 문화나눔사업	
	1. 문화나눔사업의 현황과 의의	30
	2. 2015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개요	31
제3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연구방법	
	제1절 :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1. 선행연구에서의 문화소의계층 정의 및 추계	36
	2. 본 연구에서의 문화소의계층 추계	41
	제2절 : 문화나눔사업 욕구조사	
	1. 통합방법론	42
	2. 본 연구의 통합방법론	44
	3. 양적연구	45
	4. 질적 연구: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FGI)	47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제1절 : 대상자 추계 결과	
	1. 1단계 경제적 소외계층	49
	2. 2단계 지리적 소외계층	50
	3. 3단계 사회적 소외계층	52
	4. 중복 제거 후 최종 추계 대상자	53
	제2절 : 욕구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특성	55
	2. 문화나눔사업 참여경험 및 향후 참여의향	57
	3.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동기, 선택기준, 미참여 이유	60
	4. 공연예술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65
	5. 거주지역별 참여 만족도 및 향후 참여의향	66
	6. 거주지역별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동기, 선택기준, 미참여 이유	69
	7. 장애유무에 따른 문화나눔사업 참여만족도와 향후 참여 의향	73
	8. 장애유무에 따른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동기, 선택기준, 미참여이유	75
	제3절: 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결과 분석	80
제5장	결론 및 제언	
	1. 문화나눔사업 대상 개념화와 재규정	96
	2. 문화나눔사업 전달체계	97
	3. 문화나눔사업 내용	99
	참고문헌	101
	[부록] 설문지	102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개요

제2절 :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수행체계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개요

- 사회복지는 시대와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왔다. 전통적 복지는 보다 선별적 측면에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두어왔다. 반면 빠르게 변화하고 다원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만족시키거나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 시각에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사회적, 심리·정서적, 문화적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확대되어왔다. 즉,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인간다운 삶,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이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교육복지, 의료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정서를 순화하고, 감수성을 함양해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확대되고, 삶의 질이 문화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일관되게 증명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문화복지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출현, 공공부문으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새로운 사회복지의 영역으로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통합적인 요소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더불어 이는 사회복지의 개념과 영역이 문화복지로 분명하게 확장되고 사회적 개입 또한 확대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도래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문화소의계층'이란 누구이며, 어떤 범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소의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소의계층의 규모를 추계하며 이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이용자 중심적 관점에서 양적 및 질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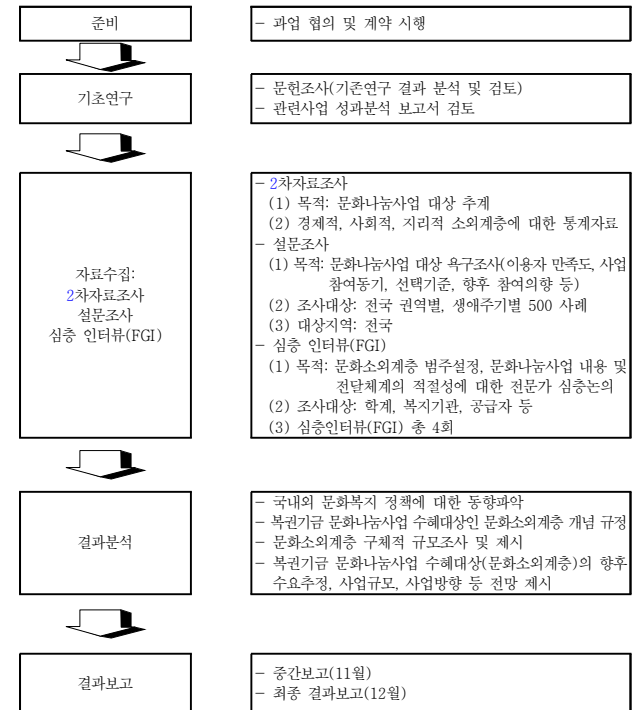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한다.

- 첫째, '문화소의계층'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이에 근거하여 단계별 대상 규모를 예측한다.
- 둘째, 문화나눔사업 이용자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해 대상별 참여 만족도, 참여 의향, 문화예술향유에 있어서의 장벽과 통로 등 맞춤형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대상별, 지역별, 사업별로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셋째, 문화나눔사업 제공자와 관련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현재 문화나눔사업의 내용구성 및 전달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넷째, 위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문화나눔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제1장 서론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수행체계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제1장 서론

2.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문화복지 정책에 대한 동향과약을 위해 사업 주체별 문화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 및 수혜대상별 문화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조사한다.
- 또한,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을 개념화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단계별로 추계한다.
 - 문화소외계층 구체적 규모를 조사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개념설정 때 따른 현실점에서의 범주별, 계층별 규모 단계적 추계
 - 문화나눔사업의 해당 사업별 문화소외계층 추계
 -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소외계층 및 특수 소외계층 등의 소외계층 조사
 -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연도별, 범주별 규모예측
- 본 연구는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대상(문화소외계층)의 단계별 수요추정, 사업 규모, 사업방향 등의 전망을 제시한다.
 -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사업별 향후수요를 측정하고 사업규모, 사업방향 및 전망을 제시한다
- 본 연구는 사업 대상자 유형분류를 위한 설문지 개발 및 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 유형 재분류를 시행하였으며, 조사결과 분석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 조사 방법
 - 구조화 된 설문지 및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설문조사 대상: 전국 권역별(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의 분류 활용) 거주지역 특성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로 구분한 문화나눔사업 이용자 총 500명
 - 전문가 집단 인터뷰(FGI) 대상: 문화나눔사업 실행기관 실무자(사업분류 대상), 수혜대상 관리기관 및 시설 등 실무자, 문화복지계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

제2장 이론적 논의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 문화복지

1. 문화복지의 개념
2. 문화복지의 타당성
3. 문화소외계층

제2절 : 문화복지정책 전개과정 및 현황

1. 국내 문화복지정책 전개과정
2. 국내·외 문화복지정책 현황

제3절 : 문화복지정책으로서 문화나눔사업

1. 문화나눔사업의 현황과 의의
2. 2015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개요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문화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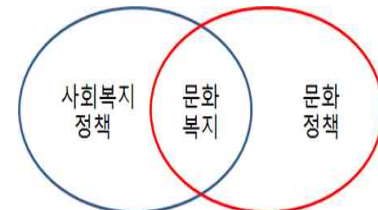
1. 문화복지의 개념

- 문화복지는 ‘문화(culture)’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서 ‘문화’가 ‘사회복지’라는 영역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갖는 신조어이다. 문화복지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사회복지의 하위영역’으로 보는 시각과 ‘문화정책의 독자적 영역’으로 보는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 양혜원(2013)은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복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전통적으로 협의의 사회복지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잔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고 개별화된 욕구가 증가하고 사회문제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여 행복을 추구하도록 도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여기에는 국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따라서 문화복지는 사회복지의 하위영역의 하나인 동시에 의식주와 건강 등 기본 수준의 복지에서 복지국가가 도달해야 할 높은 수준의 복지단계라 할 수 있다.
-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복지를 ‘문화감수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적·사회적 의지와 노력으로 본다.
- 협의적 의미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결핍을 가진 문화적 약자를 예방·치료하는 것이고, 광의적 의미에서는 모든 국민의 문화적 욕구 및 필요성에 부응해 문화환경을 개선·정비하고 필요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 사회·문화적 서비스, 문화적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제공하는 것,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문화적 생활, 건강한 생활, 쾌적한 생활을 실현하는 제반

제2장 이론적 논의

공공서비스를 포괄한다.

- 문화복지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cultural right)의 확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문화정책의 주요한 구성부분 또는 목표로 간주한다.
- 사회복지지는 물질적·경제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인 반면, 문화복지는 정신적·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며 두 가지가 병렬적으로 연계되어 궁극적인 삶의 질 제고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지를 광의로 파악할 때 사회취약계층과 일반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문화복지는 사회복지의 하위 영역에 포함된다.
- 또한 문화복지를 ‘문화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정의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적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 및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시책과 과정, 관련 제도”로 정의한다.
- 문화복지 영역은 사회복지정책과 문화정책이 담당하는 분야와 중첩되어 있어 추구하는 목표나 내용에 있어 유사성이 크며, 실제로 문화복지정책 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의 요구된다. 문화복지의 영역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문화와 사회복지, 문화복지의 영역

제2장 이론적 논의

2. 문화복지의 타당성

- 양혜원(2013)은 문화복지를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권(cultural right)'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실제로 문화권은 각종 세계기구의 선언과 협약, 각국의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다.
 - 1948년 제정된 「UN 인권선언」 제 27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이후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5조에서는 문화적 권리를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적용에 따른 혜택을 누리며 자신이 만든 그 어떤 과학, 문학, 예술 상품으로 정신적, 물질적, 이득을 누릴 자유'와 연관시켜 규정하였으며, 1968년 개최된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에 관한 성명」이 발표되었다.
 - 또한 1986년 채택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리버그 원칙」에서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며,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야 하며, 소외계층에 대해 국가적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문화권에 포함되는 핵심적인 권리는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문화적 생존권, 문화공동체와 연계하고 동일화할 권리, 문화적 정체성을 존경할 권리, 유품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종교적 믿음과 실천에 대한 권리, 의사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 교육의 선택과 학습에 관한 권리, 문화정책의 내실화에 참여할 권리, 문화적 삶에 참여하고 창조할 권리, 내적인 발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환경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국민의 문화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는 소득이나 교육수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에 대해 공평하게 접근(equitable access)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문화생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스스로를 표현하고, 창조하고 내적인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적자원을 활용하여 개입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이론적 논의

3. 문화소의계층

가. 빈곤과 소외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의 결과로 빈부 또는 소득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IMF경제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원인보다는 사회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빈곤을 구제하여 국민의 최저생활(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라는 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 소득과 빈곤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개념이 있다. 절대적 빈곤이란 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소득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가구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절대 빈곤층, 극빈층이라고 한다.
- 이에 반해 상대적 빈곤이란 그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정의하는 것으로, 보통 가구총소득이 중위층 평균소득의 40~50%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상대적 빈곤층이라 한다. 또한 가구총소득이 중위소득의 50~70%에 속하는 계층은 상대적 빈곤의 차상위계층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 절대적 빈곤
 - 절대적 빈곤이란 개인 및 가족이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및 기타 생활상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어 인간다운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흔히 빈곤선(poverty line)이라는 절대적 최저수준에 따라 정의되며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지출이 국가가 정한 최저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되는 상태를 말한다. 고전적인 빈곤개념 하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대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나 조건을 말하며, 독자적 능력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상대적 빈곤

제2장 이론적 논의

- 상대적 빈곤이란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로 정의하거나 또는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의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 상대적 빈곤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불평등 측면을 강조한다. 즉,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보여지는 불평등 혹은 상대적 박탈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개념으로 사회의 소득분배격차에서 발생하는 계층 간 소득차이로 인해 생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주관적 빈곤

- 주관적 빈곤이란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의되는 빈곤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빈곤으로 느끼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빈곤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안녕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관적 판단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기준보다 빈곤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자신의 빈곤 여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2절 국내 문화복지정책 전개과정 및 현황

1. 국내 문화복지정책 전개과정

-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이 가시화 된 것은 문화권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언급한 전두환 정부로 볼 수 있으며(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문화취약 계층에 대한 문화향수 확대 지원사업이 본격화 된 시점은 북권기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2005년으로 볼 수 있다(문화정책 백서, 2005).
-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따라 북권기금 전입사업이 개시되었으며,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대상은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공연관람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2006년부터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에 있어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2006년부터 체계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5개 지역별 주관자가 선정되어 해당지역의 프로그램 선정과 사업운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 2011년에 들어서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제정은 크게 확대되었다.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을 '문화융성 원년의 해'로, 2014년을 '문화융성 시작의 해'로 명명하고 '문화융성 국민체감의 시작'을 목표로 문화정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북권기금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문화나눔사업이 본격화된 시점인 2005년을 문화향유확대 지원사업의 도입기, 그 이전을 인식기로 명명하고 확장기, 전환기 및 성숙기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표 2-1>문화향유 확대 지원정책 전개과정: 문화이용권을 중심으로

구분	목표	특징	주요 관련사업
인식기 (1980년대 ~2000년대 초)	문화권 보장 삶의 질 제고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문화복지 및 문화복지 국가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기반 조성	지방 문화시설 건립 관련 통계조사 실시 문화의 집 조성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입기 (2003~2005)	취약계층 문화기회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신장 문화이용권 복권기금 전입 (2005년 4억원)	문화이용권 문화예술 교육 강조
확장기 (2006~2010)	취약계층 문화 기회 확대 창의의 한국	북권기금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의 꾸준한 증가 (2006년 16.4만명/26억~ 2010년 46.9만명/67억)	문화이용권 신나는 예술여행
전환기 (2011~2012)	소의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이용권 전용카드제 도입 문화이용권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2010년 67억원 → 2011년 340억원) 가구당 이용	문화/관광/스포츠 이용권 문화나눔사업
성숙기 (2013~현재)	문화융성 국민문화 제강 확대 문화향유 지원 확대	이용권 통합카드제 도입(2014년) 2013년 493억원 →2014년 730억원 (차상위계층의 50%까지 수혜대상 확대)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생활 속의 문화체험 유도)	통합문화이용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예술정책백서(2004~2013), 북권기금 육구조사(2012), 용호성(2012), 정부성의
(2014) 제언문

1) 인식기(1980년대~2000년대 초)

- 전두환 정부에서 헌법에 '문화'를 삽입함으로써 문화국가 구성원리를 표방하고 '삶의 질'을 강조함과 동시에 문화권을 언급하였다(이호준, 정부성의, 2012).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 국제적인 대규모 문화이벤트가 개최되어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문화향수권에 대한 관심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 1995년 문민정부는 체계화정책의 일환으로 '삶의 질의 세계화'를 국정목표로 삼아

제2장 이론적 논의

문화복지를 사회복지와 함께 증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 창의성 제고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창의적 문화복지 국가'를 문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문화기반시설 확대, 문화지구, 문화프로그램 정보 등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소의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2) 도입기(2003~2005)

-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주5일 수업제의 단계별 실시를 시작으로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나 시간과 경제적인 문제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없는 계층에게는 오히려 문화적인 양극화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2004년 북권기금의 유입으로 예술진흥 재원과 소득계층 간 문화향유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여가 확대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2005년에 4억원의 규모로 문화이용권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3) 확장기(2006~2010)

- 2006 국민여가 조사결과, 세대별·성별 여가생활에 차이가 뚜렷한 것에 초점을 두고 소득간·계층간 여가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초로 국민들의 여가생활참여 실태보고서인 『2006 여가백서』가 발간되었다(문화백서, 2006).
- 문화이용권사업을 기준으로 2005년 지원대상 인원은 3만명, 지원예산은 4억원에서 2006년 지원대상 16.4만명, 지원예산 27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지원대상은 약 5.5배, 예산은 6.5배 증가하였다. 이후 2008년 26억, 2009년 40억, 2010년 67억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지원 인원도 2010년 46.9만명으로 확대되었다(용호성, 2012).

4) 전환기(2011~2013)

- 이명박 정부는 문화정책의 비전으로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선진인류 국가란, 단지 소득수준만 높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문화수준을 가진 문화강국임을 공표하였다. 이에 국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문화를 통해 함께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화정책을 수립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이어 문화향유 기반조성 및

제2장 이론적 논의

생활 속의 문화 체육 관광 활성화에도 초점을 두었다(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2013).

- 이에, 수혜자·수요자 중심의 문화를 누릴 기회의 고른 보장, 대도시와 농어촌의 문화격차 해소 등을 주요 해결과제로 문화여가사업을 확대해 나아갔다. 2011년에는 문화이용권(관람이용권, 스포츠이용권포함) 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2005년 4억에 비해 2012년 487억으로 약 122배 증가하였다.

5) 성숙기(2013~현재)

-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을 정책기조로 2013년을 문화융성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2014년은 국민들이 문화융성을 직접 체험하는 해로, 2015~2016년은 문화의 일상화, 2017년 문화융성 실현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여가확대 지원사업의 상징이었던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명칭을 2013년 '문화이용권'으로 변경하고, 2014년에는 기존의 문화이용권, 관람이용권, 스포츠이용권으로 각각 운영되던 카드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만들었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 한편,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에서 무료 및 할인관람을 시행하고 있다(문화포털 홈페이지, 2014).

2. 국내 문화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가. 국내 현황

1) 2013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 및 타당성 평가¹⁾(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나눔사업의 목적 : 문화나눔사업은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문화양극화 해소라는 2가지 목적을 가진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북권기금문화나눔사업 성과 및 타당성 연구, 참고.

제2장 이론적 논의

-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기타 특수한 환경적 여건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문화나눔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이 문화를 누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문화 양극화 해소: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고, 문화소외계층이 창의적 힘을 발휘하여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한다.

<표 2-2> 문화나눔사업의 목적 및 지원내용

사업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목적	지원내용
공연나눔	통합문화이용권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 제공
	소외계층 문화순회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예술단체의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 대상 문화예술 순회프로그램 개최 경비지원
	사랑티켓	어르신(65세 이상) 및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등 공연·전시관람료 지원을 통한 문화접근성 제고	1인당 공연 (개인) 미취학 5,000원, 개인_그 외 10,000원, 단체 미취학 3,000원, 단체_그 외 7,000원), 전시 5,000원씩 연 10회 지원
창작나눔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화소외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확대	공연행사 개최 경비지원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	소외지역주민들의 자율적 문화활동 형성 및 활성화 계기 마련	자생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행사경비 지원

□ 문화나눔사업 성과

- 통합문화이용권

-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에

제2장 이론적 논의

술 프로그램의 관람 지원금 및 음반, 도서구입 지원금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은 102.2%로 목표치인 100%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이용률도 94.7%로 목표치를 101% 초과 달성하였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수혜자 수는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수혜자가 994,345명, 기획사업 수혜자가 480,971명이었으며,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전체 만족도는 81.1점으로 목표치를 100.2% 초과 달성하였다.
- 2014년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비교분석 결과,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참여가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에 대한 관심제고, 문화예술 향유 수준에 대한 상대적 인식 제고(상대적 박탈감 완화),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참여) 의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 2014년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은 7개 유형의 세부사업을 통해 소외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사업을 새로 편성하여 소규모 공연이 갖는 대중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더욱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그 결과 수혜자 수는 588,994명으로 목표치를 100.1% 달성하였으며, 만족도는 84.1점으로 목표 대비 100.2%를 달성하였다. 종합인지도는 36점으로 전년보다 35%향상되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및 동호회 참여의향, 삶의 질, 심리적·신체적 건강,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 사랑티켓

- 사랑티켓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향유역량을 제고하고, 노인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지역별 사랑티켓센터를 문화재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여 지역별 사랑티켓 센터의 책임성 및 역할 확대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심의제도 간소화 등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하여 우수한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발굴하였다.

제2장 이론적 논의

- 그 결과 수혜자 수는 274,511명으로 목표치 대비 85.8%를 달성하였으며, 만족도는 83.0점으로 목표대비 100.5%를 달성하였다. 종합인지도는 58.4점으로 전년보다 57.4% 하락하였지만, 공연관람 횟수,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동호회 참여의향, 삶의 질, 심리적·신체적 건강, 사회적 자본 형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 방방곡곡 문화공감

-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지역 문화회관이 우수한 공연을 유치, 기획,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소외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우수한 공연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 그 결과 수혜자 수는 412,77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만족도는 84.5점으로 목표치 대비 100.2%를 달성하였다. 종합인지도는 30.4점으로 전년 대비 29.4% 하락하였지만, 역시 공연관람 횟수,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동호회 참여의향, 삶의 질, 심리적·신체적 건강, 사회적 자본형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

-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는 단순 관람확대가 아닌 적극적·능동적 문화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타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회복시키고, 지역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의 방향성 제시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그 결과 수혜자 수는 38,350명으로 목표 대비 100.7%를 달성하였으며, 만족도는 84.7점으로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다. 종합인지도는 67점으로 전년보다 66% 하락하였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동호회 참여경험 및 의향, 삶의 질, 심리적·신체적 건강, 사회적 자본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2) 2014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제2장 이론적 논의

□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목적

- 국민들의 문화활동 향유의 필요성 및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실태파악을 위한 문화향유 경로와 방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문화향유 진흥을 도모한다.
- 문화향유 및 활동조사의 문화수요 및 욕구파악과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개선점과 향후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예술행사 관람률

- 지난 1년간 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2012년 69.6%보다 증가한 71.3%로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 분야별로 보면 전통예술 관람률 이외의 전반적인 관람률(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이 증가하였다. 지난 1년 동안 분야별 예술행사 관람률은 영화가 65.8%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대중음악·연예 14.4%, 연극 12.6%, 뮤지컬 11.5%로 관람률이 높은 분야는 2012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년 동안 예술행사 관람횟수는 5.0회로 2012년 4.9회에 비해 0.1회 증가하였는데,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년 동안 분야별로는 영화가 평균 3.6회(관람자 기준 5.44회)로 가장 많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대중음악·연예가 0.5회(관람자 기준 3.46회), 연극과 뮤지컬이 각각 0.2회(관람자 기준 각각 1.74회, 1.57회)로 나타났다.

□ 예술행사 관람의향

- 예술행사 관람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85.4%가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영화관람 의향률이 77.7%로 가장 높았고, 대중음악이 30.1%, 연극 및 뮤지컬이 각각 25.2%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행사 관람시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한 결과로는 35.5%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는 비율이 19.1%, 관련정보가 부족하다 17.2%,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10.7%로 조사되었다.

제2장 이론적 논의

□ 문화예술교육

- 최근 1년 이내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은 6.9%로 2012년에 비해 1.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 교육의 경험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미술, 전통예술, 무용, 연극, 영화, 대중음악, 역사문화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이 2012년 대비 많이 낮아졌으며 특히 대중음악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은 2012년 대비 1/2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 향후 1년 이내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 교육 참여의향은 25.9%로 2012년 대비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교육 참여의향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교육 의향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시간으로 28.1%가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비용이 많이 든다 26.3%, 관심 있는 강좌가 없다 21%,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10.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 외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및 시간, 정보의 부족으로 문화예술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밖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하다.

□ 주요결과 분석

- 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의향은 예술행사에 대한 관람 만족도와 연관이 있다. 관람률과 관람의향이 모두 높게 집계된 영화의 경우 관람하였을 때 만족하는 비율이 94.1%, 뮤지컬은 91.6%, 연극은 90.8%, 대중음악은 80.5%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예술행사의 콘텐츠 수준을 높여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의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임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콘텐츠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및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또한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위한 정보습득 경로를 조사한 결과, 주변사람이 34.8%,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가 34.5%로 나타났다. 주로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주변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0대 미만의 연령층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되어 연령대 별로 문화예술행사를

제2장 이론적 논의

위한 홍보방법이 달라져야 함을 보여준다.

- 문화예술행사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34.2%가 관람비용을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25.9%,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 18.7%, 관련 정보가 많아져야 한다고 10.2% 순으로 나타나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비용과 질이 관람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해외 문화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해외 문화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박종원 외(2011), 정무성 외(2014)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 문화관광 분야의 대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현재까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문화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여 문화적 접근성 확대, 자선후원제도의 강화, 예술교육의 중요성 강조, 문화-인종적 다양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연계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또한, 미국은 다른 일반 행정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도 각 주가 중심이 되어 문화예술진흥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이란 본질적으로 다양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기에 국가가 개입해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근본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지원은 국립예술기금에서 말고 있으며 각 주의 예술위원회가 있어 지원사업만을 운영하고 있다(권정화, 2003).
-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관련 조직들로는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국무부 내 공보담당 차관(Undersecretary for Public Diplomacy&Public Affairs), 예술 및 인문학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PCAH) 등이 있다.
- 미국 국립예술기금(NEA)은 1965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순수 독립기금으로 남아 있는 조직으로, 의회로부터 직접 예산을 지원 받아 지역단위에서 공적, 사적 단체들

제2장 이론적 논의

이 수행하고 있는 예술과 인류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활동을 한다.

- 미국 연방정부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예술적 탁월성에의 접근(Access to Artistic Excellence)' 프로그램과 Challenge America Fast-Track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다.
 - 예술적 탁월성에의 접근 프로그램은 예술적 창의성을 증진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유산을 보존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예술적 탁월성 및 문화접근 증진에 효과적인 사업들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적, 인종적, 경제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문화예술활동의 접근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을 지원함으로써 관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Challenge America Fast-Track 보조금 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규모의 문화예술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접근성 및 지역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예술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그 외에 지역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는 Theater Access Project(TAP: 장애인들이 뉴욕시의 공연예술을 보다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좌석을 예약하여 할인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Community Action Program(아리조나의 노인을 위한 지역문화 프로그램), Iowa-Cultural Alliance Recruitment and Development(I-CARD: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으로서 문화예술기관의 무료 및 할인입장이 가능한 카드를 나누어 줌으로서 경제적 빈곤에 관계없이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아이오와의 프로그램) 등이 있다.
- 2) 영국
- 영국의 공공정책은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수립 및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문화정책 또한 이 개념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밀접히 연관되며, 문화예술이나 체육활동 등을 통해 이들이 가지는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상황들을 예방해 나가기

제2장 이론적 논의

위한 다중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된다.

- 영국의 문화정책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4개 지역의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의회에 의해 결정되며 문화매체, 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Sports)는 문화정책의 총괄부서로서 국립문화예술 기관들의 접근성, 우수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는 Passport to Leisure Card(노인, 학생, 장애인, 실업자,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스포츠 파크 이용시 무료와 교육 프로그램 합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 Travel Passess for People with Disability(이동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Touring performance(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 The Arts Express Networking Project(예술활동 참여에 무료교통을 지원하는 서비스), Getting There Art Taxi Scheme(60세 이상 노인이 지역의 예술극장, 박물관, 미술관에 갈 때 보다 저렴한 할인가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Space for sport and arts(저소득층 문화예술활동 지원프로그램으로서 빈곤지역의 청소년들의 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의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Day Service(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사회, 레저, 재활, 교육, 일자리 기회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3) 스웨덴

-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의 문화정책 기조는 평등을 지향하는 보편주의 정책이며, 예술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지원한다. 이러한 정부지원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연한 문화권(Cultural Right)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스웨덴은 모두가 평등하게 문화자본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단 삶 속에서 문화자본을 형성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연감상이나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 음악회 참석 등의 행위는 단순한 오락행위가 아니라 오랫동안 습득해온 문화자본의 실천이며 이러한 문화적 욕구나 취향은 양육과 교육의 산물이다.

제2장 이론적 논의

- 이런 시각에서 스웨덴의 문화복지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쉽게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체험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교육사업 추진이 궁극 문화시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 스웨덴의 경우 문화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나누어 지출하고 있는데, 할당액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 정도의 문화예산을 지출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광역지방정부는 약 10% 내외, 기초지방정부는 43% 내외의 지출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예산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과 비중이 그만큼 크다.
- 국민이 모두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의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는 국민들에게 문화자본을 축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화생활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스웨덴의 각 가정들이 스스로 문화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문화적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의 전체적인 문화지출 규모의 비율은 각 개인과 가정이 61%, 국가 39%이다.

4) 일본

- 일본 국토교통성은 어디에서나,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기 쉽도록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정책을 공표하였는데, 이는 신체적 상황, 연령, 국적 등을 불문하고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인격과 개성을 존중받고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하며 활기차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 또한 일본은 1977년 장애인 플랜 7개년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문화활동 등 자기표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여러 기구를 개발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에는 고령자 사회참가 촉진사업을 통해 고령자의 적극적인 활동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 일본의 문화복지 관련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향수하는 것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제2장 이론적 논의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청소년, 학교의 문화예술활동 등을 규정하여 이들의 문화예술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 주정부가 주관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고령자 사회참가 촉진사업 및 고령자클럽(시니어 스포츠, 취미 및 레크레이션 활동, 학습 지도자 연수, 자원봉사 등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Barrier-Free Theater(자막 및 음성안내 서비스, 탁아서비스, 이용료 및 입장료 할인) 등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우시쿠시의 「문화예술진흥조례」(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에 입각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환경조성), 나가노시의 Art Support(장애인 문화활동 리더양성 강좌) 등이 있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3절 문화복지정책으로서 문화나눔사업

1. 문화나눔사업의 현황과 의의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표적 문화복지사업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4호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을 법적근거로 한다.
 - －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35%는 법정배분사업에 사용되며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는데,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공익사업 중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배분되는 사업을 말한다.
 - －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3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시책 강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2015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계획에 따르면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한 소외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창의적 힘과 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014년 기존 8개 단위사업으로 진행되던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이 5개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일부 사업이 국고사업으로 이전되었다. 기존의 문화이용권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여행이용권과 스포츠 관람이용권이 통합문화이용권으로 흡수되었으며, 우수문학도서 보급, 공공 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이 국고사업으로 통합 이전되었다. 기존에 국고사업

제2장 이론적 논의

으로 진행되었던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이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으로 포함되어 지방 문화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과 통합되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예산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440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조성되었다가 2008년 198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2009년 이후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 2011년 480억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까지 추진되었던 4개 사업(문화나눔, 전시나눔, 전통나눔,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이 2014년 국고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2014년 기준 5개 세부사업에 613억 원이 배정되었다.
- 2015년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공연나눔(소의계층문화순회, 사랑티켓, 방방곡곡문화공감), 창작나눔사업(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와 같은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15년 기준 5개 세부사업에 631억 원이 배정되었다.

<표 2-3> 2009~2015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기금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문화 이용권	4,000	5,000	24,500	34,300	34,946	40,866	42,643
공연 나눔	사랑티켓	2,000	2,400	2,400	200	1,956	1,251
	소의계층 문화순회	6,200	5,800	8,000	9,300	9,530	10,000
	방방곡곡 문화공감	2,000	2,500	3,375	3,035	2,883	7,983
창작 나눔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1,200	1,200	1,200	1,200	1,180	1,200
	합계	15,400	16,900	39,475	48,035	50,495	61,30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2014년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 및 타당성 연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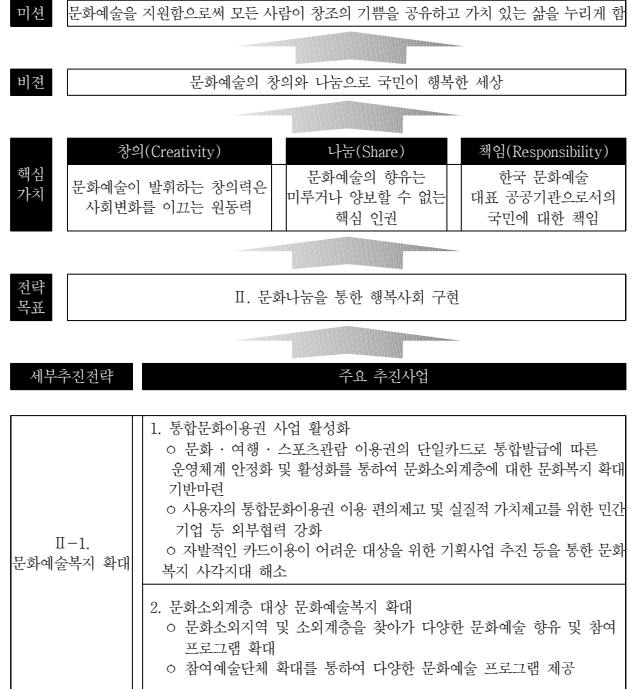
2. 2015년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개요

- 2015년 문화나눔사업의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한 소외 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제2장 이론적 논의

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창의적 힘과 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015년 문화나눔사업은 창의(Creativity), 나눔(Share), 책임(responsibility)을 핵심가치로, 문화예술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와 문화소의계층 대상 문화예술복지 확대를 주요 추진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이론적 논의

[그림 2-1] 2015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목표체계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총 5개의 세부사업, 크게 3개의 사업(통합문화이용권, 공연나눔사업, 창작나눔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 먼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개인 당 연간 5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지급한다.
- 공연나눔사업은 다시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랑티켓, 방방곡곡 문화공감 3개의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소외계층 문화순회: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양극화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단체의 문화소외지역 및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순회프로그램 개최경비를 지원한다.
 - 사랑티켓: 어르신(65세 이상) 및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등의 대상에게 공연·전시 관람료 지원을 통한 문화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인당 입장료 공연(개인-미취학 5,000원, 그 외 10,000원, 단체-미취학 3,000원, 그 외 7,000원), 전시(5,000원씩 연10회)를 지원한다.
 - 방방곡곡문화공감: 문화소외 지역의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목적으로, 공연행사 개최경비를 지원한다.
- 창작나눔사업은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라는 세부사업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소외지역주민들의 자율적 문화활동 형성 및 활성화 계기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자생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행사경비를 지원한다.
- 2014년 기준 통합문화이용권, 소외계층문화순회, 사랑티켓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방방곡곡문화공감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생활문화공동체만드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고 있다.
- 문화나눔사업은 복권기금사업 중, 대국민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은 대표사업으로 복권기금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2014

제2장 이론적 논의

년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한 수혜자 수는 2,690,842명이었으며, 참가자 만족도는 평균 83.8점이었다. 문화나눔사업의 복권기금 인지도는 2007년 23.2%에서 2010년 50.5%, 2014년 기준 5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3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제3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제1절 :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1. 선행연구에서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개념화 및 추계
2. 본 연구의 문화소외계층 추계

제2절 : 문화나눔사업 욕구조사

1. 통합방법론
2. 본 연구의 통합방법론
3. 양적 연구
4. 질적 연구: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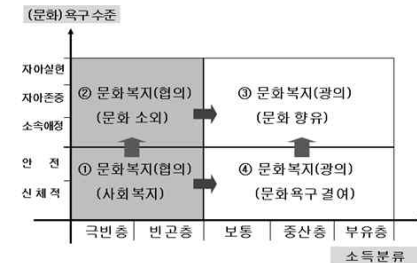
제3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제1절 문화나눔사업 대상추계

1. 선행 연구에서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개념화 및 추계

가. 2012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 욕구조사연구

1) 욕구수준을 반영한 유형분류



[그림 3-1] 욕구수준을 반영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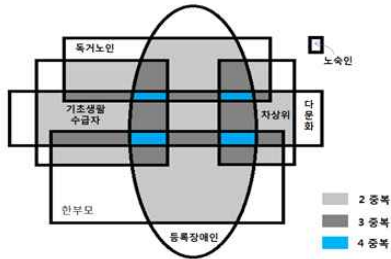
- 유형 ① : 문화에 대한 욕구수준도 낮고 소득수준도 낮은 계층
- 기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
- 유형 ② : 문화에 대한 욕구수준은 높고 소득수준은 낮은 계층
- 1차적인 문화 소외계층
- 유형 ③ : 문화에 대한 욕구수준도 높고 소득수준도 높은 계층
- 자발적 문화 향유계층
- 유형 ④ : 문화에 대한 욕구수준은 낮고 소득수준은 높은 계층
- 문화욕구 결여계층

제3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2) 단계별 문화소의계층의 범주 및 대상수

□ 1단계 : 개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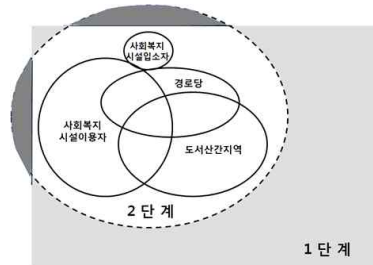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등록장애인+독거노인+노숙인+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 = 8,966,715명



[그림 3-2] 1단계 문화소의계층

□ 2단계 : 시설 입소자 및 지역 소외계층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노인 여가시설(경로당) 이용자+도서산간지역(지역적 소외계층) = 10,233,2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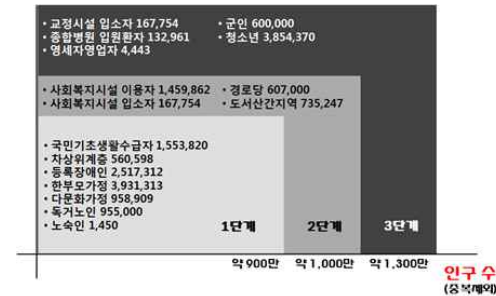


[그림 3-3] 2단계 문화소의계층

제3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 3단계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사회와 일정기간 격리되거나 문화와의 접근성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집단

- 교정시설+종합병원+군인과 1인 사업자+청소년(중·고등학교 청소년) = 9,259,386명



[그림 3-4] 단계별 문화소의계층

- 마지막으로 각 계층별 인원을 총체적으로 합산하고, 각 계층별·단계별 중복인원을 제외하여 1,2,3 단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문화소의계층의 규모는 약 13,896,841명으로 추정된다.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피해자, 장기실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전문개정 2010.12.9.]

다.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및 대상가구 추계연구

- 2015년 시작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은 2015년 7월에 시행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가구를 추계하였으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장애인, 노인, 영유아를 가구원으로 포함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소득/재산을 각각 고려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 총 가구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제시되어있는 2015년 추정가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의료급여추정 가구로 대상을 추계하였다.
-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에 제시된 2015년 전체 가구수는 18,705,004가구이며, 이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1,604,891가구(전체가구의 8.58%)이며, 이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가구는 77.8%인 1,249,269 가구로

제3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최종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가구에 추계되었다(아래 <표 3-1> 참조). 이 중 이미 연탄바우처와 등유바우처 등 예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36,114가구를 제외하고,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률 42.4%를 적용)을 적용하여 698,777가구가 최종적으로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로 추계되었다.

<표 3-1>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추계

가구원수	1)전체가구수	2)중위소득 40%이하	3)노인·장애인·영유아 포함가구	4)연탄·등유 바우처 대상 제외	5)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1인	5,060,551	784,820	651,400	633,542	364,920
2인	4,990,573	507,456	423,726	411,418	236,977
3인	3,988,237	177,976	95,929	93,399	53,797
4인	3,521,897	91,841	49,411	47,327	27,261
5인 이상	1,143,746	42,798	28,803	27,470	15,822
계	18,705,004	1,604,891	1,249,269	1,213,156	698,777

1)전체가구수는 장래가구추계(통계청, 2015년 추정가구 기준)

2)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전체비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b)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제시한 8.58%를 적용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근거로 추계함.

3) 가계금융복지조사(2012)에 근거하여 추계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5세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4)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중 기존 연탄쿠폰 및 등유바우처 지원 중복가구(산업부 석탄산업과, 자원정책과)

5)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률 42.4% 적용(복지부)

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소의계층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활급여수급자와 같은 근로 저소득층,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연금 수급자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으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되고 있다.
- 제23조의2(문화소의계층의 범위)
 - －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의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연구방법

- 앞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문화소외계층을 3단계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경제적 소외계층을 범주화하고 2015년 10월 31일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제시한 자료 중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을 제외한 인구 51,016,281명과 20,553,960가구를 기준으로 추계한다. 또한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2.48명으로 제시되었기에 이를 참고하여 가구 수를 명으로 환산한다.
 - 1단계에서 제시하는 경제적 소외계층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43%이하 가구에 대하여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에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을 참고한다.
 - 2단계 지리적 소외계층은 지역적인 소외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거주자,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군복무자, 재소자 등을 포함한다.
 - 3단계 사회적 소외계층은 사회적배제로 인하여 소외되고 문화나눔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추계하였다.
- 1, 2, 3단계별 각 인원을 추계한 후 각종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단계간의 중복대상자를 제거하여 최종대상자를 추계한다.

제3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제2절 문화나눔사업 욕구조사

1. 통합방법론

- 본 연구는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의 수요를 검증하기 위해 양적조사와 함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무형성, 복잡성, 질적 특성 등의 특성을 가짐으로써 양적조사만으로 이를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복지 분야의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양적조사를 보완하는 통합방법론을 사용한다.
- 통합방법론(combined/ mixed/ integrated methods)²⁾은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라는 이질적 패러다임과 접근을 가진 연구방법론이 각기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교차시키는 연구방법으로 최근 사회과학분야에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강철희 외, 2007; 최명민, 2007). 양적연구는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중시하며 이론 및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결과와 일반화 및 양적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추상적이며 일반적이므로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 반면 질적 연구는 복잡한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생생한 전달이 가능한 반면, 일반화와 가설 및 이론검증이 어려우며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김미숙, 2006). 이처럼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의 장단점은 대체로 양적연구의 단점이 질적 연구의 강점이고, 질적 연구의 단점은 양적연구의 강점인 모습을 갖는다. 따라서 각 방법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방법론은 연구방법론을 보다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Tashakkori & Teddlie, 1998).
- 통합방법론 반대론자들은 방법론적 순수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질적인 인식론, 존재론, 방법론을 가진 두 방법론을 결합하려는 통합방법론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합방법론은 연구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필요성과 유용성,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Tashakkori & Teddlie, 2003에서 재인용).

2) 통합방법론은 국외에서는 combined, mixed, integrated methods로, 국내에서는 혼합방법론, 통합방법론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방법론(mixed methods)으로 통일하여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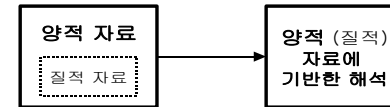
제3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 통합방법론은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의 결합을 통해 질적방법론과 양적방법의 결과는 ① 수렴되거나, ② 서로 보완적으로 이용되거나, ③ 기대와 다르게 수렴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수렴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다각적 관찰과 측정을 통해 사회현상을 보다 다각적,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Erzberger & Kelle, 2002; 강철희 외, 2007에서 재인용).
- 통합방법론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Creswell & Clark, 2007, pp. 60-62), Johnson & Onwuegbuzie(2004)은 통합방법론을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시간적 순서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시간적 순서는 어느 연구를 더 먼저 혹은 동시에 진행하였느냐에 따라, 비중은 어느 한쪽에 더 비중을 두는지 혹은 동등하게 비중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느냐를 의미한다.
- Creswell & Clark(2007)은 ① 삼각화 설계(triangulation design), ② 내재적 설계(embedded design), ③ 설명적 설계(explanatory design), ④ 탐색적 설계(exploratory design)의 4가지 유형을 제안하였다. 먼저 삼각화 설계는 양적,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각각의 결과를 비교대조하여 연구문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다. 내재적 설계는 하나의 연구가 다른 연구를 지지하는 부차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히 양적연구 설계에 질적 요소를 포함시킬 경우에 유용하다.
- 설명적 설계는 양적 연구방법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후속적인 질적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끌어내기 위해 시도된다. 탐색적 설계는 먼저 현상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자료에서 발견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즉 면접이나 관찰 등 질적 자료수집을 통해 특정 개념이나 잠재적 가설을 먼저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조작화 및 가설검증 위주의 양적연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 본 연구는 통합방법론 중 내재모델(embedded design)을 사용한다. 내재적 설계는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중 하나가 주를 이루고, 다른 하나를 주 연구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부차적으로 사용한다. 내재모델에서 양적자료와 질적 자료는 각기 다른 연구

제3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문제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자료 중 하나가 반드시 주를 이루고 다른 하나의 자료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본 연구는 내재모델 중 양적자료가 중심이 되고 질적 자료가 이를 보완하는 설계를 사용한다. 이는 양적자료에 기반하여 질적 자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하며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Creswell, J. W. & Clark, V. L. (2007).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p.68

[그림 3-5]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합방법론 중 내재모델

2. 본 연구의 통합방법론

- 본 연구는 문화나눔사업의 제언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며 풍부한 논의를 위해 통합 방법론을 사용함과 동시에 양적연구를 위한 조사를 이용자에게 실시한다.
- 양적연구 중 이용자 대상 조사는 문화나눔사업의 만족도, 참여경로 및 동기, 불참이유, 선택기준, 향후 참여의향, 문화나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문화나눔사업의 구성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 이에 더하여 양적연구에서 파악하기 힘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질적연구로서 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한다. FGI는 학계, 복지계, 문화예술공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문화소의계층 범주의 적절성, 재원의 충분성, 문화나눔사업의 적절성, 만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더하여 본 연구의 조사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3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양적 조사	질적 조사
이용자 대상 조사 - 문화나눔사업 참여현황, - 문화나눔사업 사업별 만족도 - 문화나눔사업 사업별 향후 참여의향 - 참여경로 및 동기 - 선택 기준 - 불참 이유 -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학계, 복지계, 문화예술공급자 대상 FGI - 문화소외계층의 정의 - 문화나눔사업 제원의 충분성 - 문화나눔사업 내용 및 전달체계의 적절성 - 우수사례

[그림 3-6] 본 연구의 조사 체계

3. 양적 연구

- 본 조사는 문화복지 수혜대상을 파악하고 그 대상들이 원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영역을 재분류하여 사업을 설계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하는 1차적인 목표를 두고, 기존의 문화나눔사업의 수혜자 뿐 아니라 확대개념으로의 문화 복지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 그리고 문화소외계층의 특성에 적합한 조사대상을 선별하고자 전국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지역별 소외계층 비율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 구체적인 표본추출방법으로써 할당표집법을 이용하기 위해 전국 지역별 인구통계상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분류한 후 앞서 제시한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직접 혹은 관리자를 통해 배포 및 수거작업을 실시하였다.
- 조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해당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우편설문을 진행하였다.

가. 모집단

- 모집단은 전국 16개 사도에 거주하는 7세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다.

제3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나. 표본추출방법 및 표본 크기

- 표본은 500명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할당표집법을 이용하여 임의추출 하였다.
 - 첫째, “2015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총인구를 조사한 후 통계청의 인구별 통계를 활용하여 16개 시·도별 시·군·구의 총인구 대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 다문화가정, 노인 등 경제·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 둘째, 16개 시·도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분류하여 소외계층 비율이 높은 조사대상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 셋째, 각 시·군·구에서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협력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문화시설을 선정하였다
- 배포된 605개의 설문지 중 492부(81%)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 중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81개의 사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다. 조사 도구 및 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대상
인구학적 특성	지역, 성별, 나이, 장애 유무, 혼인여부	최종학력, 직업, 월 평균 소득	일반
		학력,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학력	청소년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인지 및 참여	문화나눔 각 사업별 참여유무, 참여경로, 참여동기, 미참여 이유, 개선사항 및 지원정도		일반/청소년
전반적인 문화나눔에 대한 수요	참여를 희망하는 문화활동 영역, 희망하는 문화예술교육 영역, 문화나눔사업 참여시 선택기준, 문화나눔사업 참여시 꺼려지는 이유		

라. 자료분석

- 회수된 설문지는 부호화작업(Coding)과 오류검토 작업 및 편집과정을 거쳐, SPSS 2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제3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4. 질적 연구: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FGI)

- 문화나눔사업의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FGI)는 프로그램 제공자의 시각에서 문화나눔사업의 대상, 내용, 전달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사용자 의견과 함께 공급자 측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 FGI 설계

- 본 연구의 FGI는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에는 공무원과 수혜기관장, 2차에는 관련 학계 교수와 연구원, 3차에는 예술인과 수혜기관, 매개기관 관계자, 4차에는 연구원과 매개기관 관계자, 문화나눔활동가가 참석하였으며 FGI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2> FGI 구성

구분	날짜	시간	장소	참여자(소속)
1차	2015.10.19(월)	19:30~21:00	승실 사이버대 부총장실	정**(국립장애인도서관), 김**(성심수도회 커피동물원)
2차	2015.10.26(월)	10:30~12:00		상**(성공회대) 서**(서울시립대) 임**(승실대학교)
3차		19:00~21:00		오**(동작연극협회) 정**(중구장애인복지관) 장**(한국매세나협회) 황**(면목종합사회복지관)
4차	2015.12.09(수)	17:00~20:00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양**(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황**(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정**(광주문화재단)

나. FGI 주요 질문

- 본 연구를 위한 FGI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소의계층의 조작적 개념화 및 범주
 - 문화나눔사업 내용(컨텐츠) 구성 및 적절성
 - 문화나눔사업 전달체계 방식 및 주체별 역할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결과

제1절 : 대상자 추계 결과

1. 1단계 경제적 소외계층
2. 2단계 지리적 소외계층
3. 3단계 사회적 소외계층
4. 중복 제거 후 최종 추계 대상자

제2절 : 욕구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특성
2. 문화나눔사업 참여경험 및 향후 참여의향
3.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동기, 선택기준, 미참여 이유
4. 공연예술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5. 거주지역별 참여 만족도 및 향후 참여 의향
6. 거주지역별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동기, 선택기준, 미참여 이유
7. 장애유무에 따른 문화나눔사업 참여만족도와 향후 참여의향
8. 장애유무에 따른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동기, 선택기준, 미참여 이유

제3절 : 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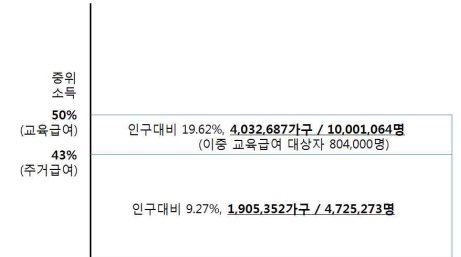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제1절 대상자 추계 결과

1. 1단계: 경제적 소외계층

- 경제적 소외계층은 교육급여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위소득 50%로 설정하고 보다 보편적인 측면에서 대상자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교육과 문화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보다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성격을 지닌다.
- 기존의 기준과 같이 수급자만을 대상을 설정할 경우 문화 향유 욕구는 있으나 법적인 경제적 소외계층 범주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근로빈곤 가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급여 기준으로 적용하여 교육과 문화향유 기회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측면을 강화하였다.
- 또한 교육과 문화는 '사전적 분배'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투자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정책이라는 헤크만(J. Heckman)의 주장도 참고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 정책은 일시적으로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사회 이동성과 사회통합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성, 노동생산성 증진으로 재분배 정책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노대명의, 2013).
- 중위기준 50%, 43%를 기준으로 두 가지 기준에 따른 경제적 소외계층을 추계하였다. 중위소득 50%는 총 가구대비 19.62%이며, 중위소득 43%는 총 가구대비 9.27%이다.
 - 중위소득 50%는 4,032,687가구이며 이를 평균 가구 수인 2.48명을 적용하여 명으로 환산하면 10,001,064명이다.
 - 중위소득 43%는 1,095,352가구이며 이를 평균 가구 수인 2.48명을 적용하여 명으로 환산하면 4,725,273명이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주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주2) 가구 수는 장래 가구추계 (통계청, 2015 기준)
 주3) 원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그림 4-1] 1단계 사회적 소외계층

2. 2단계: 지리적 소외계층

- 2단계는 지리적 소외계층으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군복무자, 재소자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2014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제60호를 기준으로 각 생활시설별 이용자를 합산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17,720명, 노인복지시설 128,141명, 장애인복지시설 31,152명, 정신질환자요양시설 11,048명, 노숙인시설 10,615명, 결핵 및 한센인시설 410명 등 총 199,086명이다.

	시설수(개소)	생활인원(명)
아동복지	308	17,720
노인복지	4,995	128,141
장애인복지	1,397	31,152
정신질환자요양	59	11,048
노숙인	123	10,615
결핵 및 한센인	6	410
총계	6,888	199,086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 도서산간지역 거주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 송달기준 적용 곤란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중 인구 4,000명 미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 앞서 언급한 기준에 의한 도서산간지역 거주자는 685,649명이며 이 중 인구 4,000명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구수는 313,075명이다.
- 군복무자에 대한 현황자료는 국가기밀사항에 해당되어 비공개이기 때문에 본 추계를 위하여 e-나라지표 현역병 입영현황을 참고하여 군복무기간을 약 2년으로 잡고 2013년과 2014년 정원을 합하여 530,463명으로 추계하였다.

	2013	2014
정집	125,536	137,643
모집	130,635	136,649
전체(계)	256,171	274,292

- 재소자에 대한 현황은 2012년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를 참고하여 수형자, 미결수용자, 노역장유치자, 사형확정자를 포함하는 수용자 46,708명으로 추계하였다.

2012년 계	가결	미결
46,708	31,434	15,274

- 지리적 소외계층은 이들 시설거주자 199,086명,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313,075명, 군인 530,463명, 재소자 46,708명의 합인 1,089,332명으로 추계하였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그림 4-2] 2단계 지리적 소외계층

3. 3단계: 사회적 소외계층

- 3단계 사회적 소외계층은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족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 한부모가족은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참고하여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1,749,000가구를 평균가구원 수인 2.48명을 곱하여 4,337,520명으로 추계하였다.
- 등록장애인은 201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등록장애인현황을 참고하여 2,501,112명으로 추계하였다.
- 독거노인은 2010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 노인세대 구성별 분포에서 1인가구인 1,066,365가구를 동일하게 명으로 추계하였다.
- 다문화가족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시키는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추계하였다.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 현황은 305,446명이므로 이들에 평균가구원 수인 2.48명을 곱하여 757,506명으로 추계하였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그림 4-3] 3단계 사회적 소외계층

4. 중복 대상자 제거 및 추계인원

□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1단계 10,001,064명, 2단계 1,089,332명, 3단계 8,662,503명으로 총 19,752,899명이다.

- 이들 중 각 단계간의 중복인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중복대상자를 제거하였다.
- 1단계 경제적 소외계층 & 2단계 지리적 소외계층 중복자
 - 1) 경제적 소외계층 중 시설수급자 = 91,327명
- 1단계 경제적 소외계층 & 3단계 사회적 소외계층 중복자
 - 1) 경제적 소외계층 & 장애인(수급자의 21.9%) = 2,190,233명
 - 2) 경제적 소외계층 & 한부모가족(수급자의 11.5%) = 1,150,122명
 - 3) 경제적 소외계층 & 노인(수급자의 29.1%) = 2,190,233명
 - 노인가구중 독거노인비율(19.6%) = 429,286명
 - 4) 경제적 소외계층 & 다문화가족(4.9%) = 490,052명
- 따라서 중복대상자는 총 4,351,020명이며 중복인원을 제거한 대상자는 **15,401,879명**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12년의 추계인원인 13,896,841명과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비교하여 1,505,038명이 증가하였다.

□ **중위소득 43%를 기준**으로 한 1단계 4,725,273명, 2단계 1,089,332명, 3단계 8,662,503명으로 총 14,477,108명이다.

- 이들 중 각 단계간의 중복인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중복대상자를 제거하였다.
- 1단계 경제적 소외계층 & 2단계 지리적 소외계층 중복자
 - 1) 경제적 소외계층 중 시설수급자 = 91,327명
- 1단계 경제적 소외계층 & 3단계 사회적 소외계층 중복자
 - 1) 경제적 소외계층 & 장애인(수급자의 21.9%) = 1,034,835명
 - 2) 경제적 소외계층 & 한부모 가족(수급자의 11.5%) = 543,406명
 - 3) 경제적 소외계층 & 노인(수급자의 29.1%) = 1,375,054명
 - 노인가구 중 독거노인비율(19.6%) = 269,511명
 - 4) 경제적 소외계층 & 다문화가족(4.9%) = 231,538명
- 따라서 중복대상자는 총 2,170,617명이며 중복인원을 제거한 대상자는 **12,306,491명**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12년의 추계인원인 13,896,841명과 비교하여 1,590,350명이 감소하였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제2절 욕구조사 결과 분석

- 욕구조사는 일반집단(성인, n=373)과 아동청소년(n=108)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답자특성

- 일반집단 응답자는 373명으로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 36.3%에 비해 여성, 63.7%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23.4%, 30대 17.7%, 20대가 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구분을 보면 도시지역이 47.5%, 도농복합지역이 26.4%, 농산어촌이 26.1%의 비율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도 35.1%, 중졸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형태는 양부모가족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인 가구 27.1%, 기타로 응답한 가구가 21.3%로 부부가족으로 기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부모 가족이 11.3%로 가구형태를 차지했다. 가구생활여건을 보면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가구가 71.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18.6%, 차상위 계층이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를 묻는 질문에서는 장애없음이 59.2%, 장애 있음이 40.8%로 나타났다.

<표 4-1> 일반집단대상 응답자특성

(n=373)

구분		빈도(명)	%
1. 성별	남	135	36.3
	여	237	63.7
2. 나이	20~29세	64	17.4
	30~39세	65	17.7
	40~49세	58	15.8
	50~59세	51	13.9
	60~69세	44	12.0
	70세 이상	86	23.4
3. 거주지역	도시	160	47.5
	도농복합지역	89	26.4
	농산어촌	88	26.1
4. 학력	무학	18	4.9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초졸	34	9.3
	중졸	43	11.7
	고졸	131	35.7
	대졸이상	141	38.4
5. 가구형태	1인가구	98	27.1
	한부모가족	41	11.3
	다문화가족	4	1.1
	양부모 가족	125	34.5
	3대가족	14	3.9
	조손가족	3	.8
	기타	77	21.3
6. 가구생활여건	기초생활수급자	67	18.6
	차상위계층	35	9.7
	기타(일반)	259	71.7
7. 장애유무	장애없음	210	59.2
	장애있음	145	40.8

- 7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연령별 구분은 초등학교(7~12세), 중학생(13~15세), 고등학생(16~19세)으로 분류하였다. 응답자 중 중학생이 67%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은 17%, 초등학생이 16% 순이었다. 성별구분의 경우 남학생은 58.5%, 여학생은 41.5%의 비율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농산어촌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시 33.3%, 도농복합지역 23.2% 순이었다.
- 가구형태는 양부모가족이 29.2%로 가장 많았으며, 한부모 가족이 25.5%, 1인가구가 9.4%, 조손가족이 8.5%순으로 나타났다. 가장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48.1%, 고졸은 43.5%로 나타났다. 가구생활여건을 보면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일반이 63%, 기초생활수급자가 23.1%, 차상위계층이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는 장애없음이 88.9%로 나타났다.

<표 4-2> 아동청소년 응답자특성

(n=108)

구분	빈도(명)	%
----	-------	---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1. 성별	남	62	58.5
	여	44	41.5
2. 나이	7~12세	17	16.0
	13~15세	71	67.0
	16~19세	18	17.0
3. 거주지역	도시	23	33.3
	도농복합지역	16	23.2
	농산어촌	30	43.5
4. 본인학력	초등학교 재학중	11	10.5
	초등학교 졸업	4	3.8
	중학교 재학중	74	70.5
	중학교 졸업	1	1.0
	고등학교 재학중	14	13.3
	대학교 재학중	1	1.0
5. 가구형태	1인가구	10	9.4
	한부모가족	27	25.5
	양부모 가족	31	29.2
	3대가족	3	2.8
	조손가족	9	8.5
	기타	26	24.5
6. 가장학력	무학	1	0.9
	초졸	1	0.9
	중졸	2	1.9
	고졸	47	43.5
	대졸이상	52	48.1
7. 가구생활여건	기초생활수급자	25	23.1
	차상위계층	14	13.0
	기타(일반)	68	63.0
8. 장애유무	장애없음	96	88.9
	장애있음	6	5.6

2. 문화나눔사업 참여경험 및 향후 참여의향

- 나눔문화사업의 사업별 참여율을 일반응답자와 청소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일반응답자(성인)는 영화관람(91.4%)이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공연 및 전시관람(90.3%), 국내여행(87.1%), 도서 및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음반구입(86.9%)순으로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은 영화관람(94.4%)의 참여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 및 음반구입(89.8%), 공연 및 전시관람(90.3%) 순으로 참여 경향이 나타났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참여는 일반응답자는 전통예술(90.9%), 연극(89.0%), 생활문화공동체(87.9%), 음악·예술일반(86.9%)순으로 참여률을 보였으며, 청소년은 연극(85.2%), 예술일반(84.3%), 생활문화공동체(82.4%), 문학(81.5%) 순의 참여경향을 보였다. 문화나눔사업 참여부분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응답자 모두에서 영화관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음반구입과 영화관람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성인들의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참여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응답자는 연극(4.01점), 영화관람(4.00점), 공연 및 전시관람(3.89점), 국내여행(관광)과 전통예술(3.82점) 순으로 만족도를 보였다.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영화 관람과 예술일반(4.3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 및 음반구입(4.23점), 공연 및 전시관람(4.20점), 음악(4.17점), 국내여행(관광)과 연극(4.14점) 순으로 만족도를 보였다.
-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첫째, 일반과 청소년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영화관람 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참여만족도가 일반 성인에 비해 대체로 높았으며, 특히 통합이용권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나눔사업의 향후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은 전혀 없음, 없는 편임, 보통, 높음, 매우 높음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응답자는 영화관람(3.72점), 국내여행(관광, 3.59점), 음악(3.49점), 공연 및 전시관람(3.45점), 전통예술(3.43점)의 순으로 향후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을 보였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화관람(3.73점), 예술일반(3.47점), 연극(3.36점), 공연 및 전시관람(3.24점), 스포츠 관람(3.23점) 순으로 향후 문화나눔사업의 참여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문화나눔사업 참여의향이 있는 프로그램 중 일반응답자와 아동·청소년 모두에서 영화관람의 참여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일반응답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결과 문화나눔사업 중 영화관람이 참여율, 참여만족, 향후 참여의향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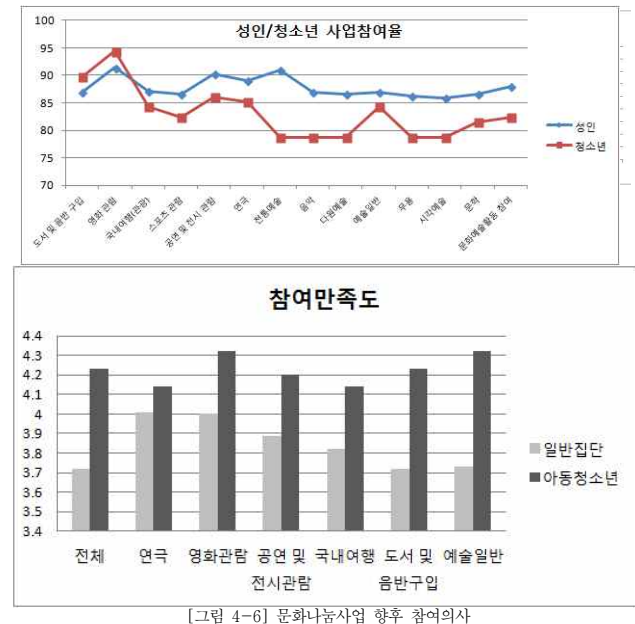
<표 4-3> 문화나눔사업 참여율, 만족도, 향후 참여의향

사업명	사업내용	참여율(%)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향후참여의향 (평균, 표준편차)	
		일반 (n=373)	청소년 (n=108)	일반 (n=373)	청소년 (n=108)	일반 (n=373)	청소년 (n=108)
통합문화 이용권	도서 및 음반구입	86.9	89.8	3.72(.56)	4.23(.40)	3.31(1.09)	3.07(1.34)
	영화관람	91.4	94.4	4.00(.65)	4.32(.47)	3.72(1.08)	3.73(1.23)
	국내여행(관광)	87.1	84.3	3.82(.67)	4.14(.44)	3.59(1.17)	3.28(1.30)
	스포츠 관람	86.6	82.4	3.63(.54)	4.09(.41)	3.13(1.15)	3.23(1.32)
	공연 및 전시관람	90.3	86.1	3.89(.57)	4.20(.41)	3.45(1.10)	3.24(1.31)
신나는 예술여행	연극	89.0	85.2	4.01(.64)	4.14(.38)	3.6(1.09)	3.36(1.34)
사랑 티켓	전통예술	90.9	78.7	3.82(.59)	3.50(.31)	3.43(1.13)	2.77(1.28)
	음악	86.9	78.7	3.81(.61)	4.17(.31)	3.49(1.09)	3.00(1.30)
	다원예술	86.6	78.7	3.60(.56)	3.9(.41)	3.14(1.09)	2.90(1.36)
	예술일반	86.9	84.3	3.73(.61)	4.32(.35)	3.38(1.12)	3.47(1.37)
	무용	86.3	78.7	3.63(.59)	3.53(.41)	3.11(1.11)	2.85(1.36)
방방곡곡 문화공감	시각예술	85.8	78.7	3.54(.64)	3.67(.38)	3.06(1.13)	2.86(1.31)
	문학	86.6	81.5	3.57(.56)	3.63(.50)	3.11(1.08)	2.81(1.32)
생활문화 공동체	문화예술활동 참여	87.9	82.4	3.73(.62)	4.11(.36)	3.41(1.04)	2.99(1.34)

[그림 4-4] 일반집단 및 아동청소년 문화나눔사업 참여율

[그림 4-5] 문화나눔사업 참여 만족도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그림 4-6] 문화나눔사업 향후 참여의사

3.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동기, 선택기준, 미참여 이유

- 문화나눔사업에 어떤 경로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참여경로 분석결과를 빈도와 비율로 제시하였다. 일반집단은 '지역문화 및 복지기관을 통해서' 155건 5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위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57건 19.9%,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37건 12.9% 순으로 문화나눔사업에 참여경로를 보였다. 아동청소년은 지역문화 및 복지기관을 통해서' 24건 4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 등 가족을 통해서' 17건 30.9%, '주위사람의 소개를 통해서'가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11건 20%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경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기보다는 주변 정보 제공 플랫폼이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화나눔사업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이 사업운영시 대상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강화노력이 필요하다

□ 문화나눔사업의 참여동기를 일반집단과 아동청소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반 집단은 '무료제공이기 때문에' 111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프로그램내용이 좋아서' 74건 25.7%, '지역의 문화·복지관련 기관의 권유' 54건 18.8%, '지인(친구, 선생님)의 권유' 27건 9.4% 순으로 참여동기가 나타났다. 아동 청소년은 '무료제공이기 때문에' 19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프로그램내용이 좋아서' 11건 21.72%, '지역의 문화·복지관련 기관의 권유' 8건 15.4%, '지인(친구, 선생님)의 권유' 7건 13.5% 순으로 참여동기가 나타났다. 참여동기 중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게 나온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아서'는, 수요자들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컨텐츠의 질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눔문화사업에 대한 양질의 컨텐츠 개발과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문화나눔사업 참여시 선택기준은 2가지의 다중응답으로 질문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집단은 '비용적절성' 155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프로그램 수준' 144건 41.3%, '교통편의성' 84건 28%, '문화행사의 기간 및 행사' 70건 23.3% 순으로 문화나눔사업 참여의 선택기준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은 '프로그램 수준' 30건 50.8%, '비용적절성' 23건 39.0%, '문화행사의 기간 및 행사' 15건 25.4%, '편의시설구비여부' 11건 18.6%, '교통편의성'이 10건 16.9% 순으로 문화나눔사업 참여시 고려하게 되는 선택기준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비용적절성'과 '프로그램의 수준'은 문화나눔사업 참여의 선택기준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2가지의 다중응답으로 질문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집단의 미참여 이유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155건 5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129건 43.7%,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서' 75건 25.4%, '교통이 불편해서'가 70건 23.7%의 순으로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가 23건 39.7%,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22건 37.9%,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20건 34.5%,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서' 15건 25.9%,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12건 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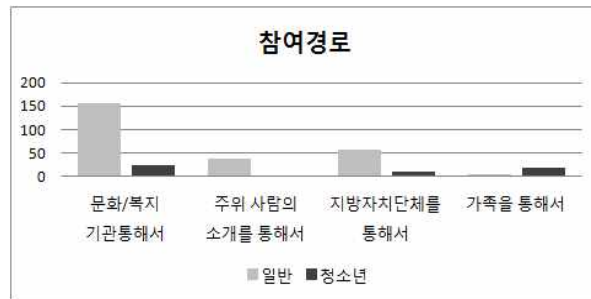
<표 4-4>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동기, 선택기준, 미참여 이유

구분	항목	일반(n=373)		청소년(n=108)	
		빈도	%	빈도	%
참여경로	지역의 문화 및 복지 관련 기관을 통해서	155	54.2	24	43.6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37	12.9	1	1.8
	주위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57	19.9	11	20.0
	부모 등 가족을 통해서	5	1.7	17	30.9
	인터넷을 통해서	14	4.9	0	0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10	3.5	2	3.6
	기타	8	2.8	0	0
참여동기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74	25.7	11	21.2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111	38.5	19	36.5
	지역의 문화, 복지 관련 기관의 권유로	54	18.8	8	15.4
	지인(친구, 선생님)의 권유로	27	9.4	7	13.5
	부모 혹은 자녀 등 가족의 권유로	3	1.0	6	11.5
	기타	19	6.6	1	1.9
선택기준	비용의 적절성	155	51.7	23	39.0
	프로그램의 수준	124	41.3	30	50.8
	문화행사의 기간 및 행사	70	23.3	15	25.4
	주최단체, 출연진의 유명도	35	11.7	5	8.5
	교통의 편의성	84	28.0	10	16.9
	편의시설(놀이방 등)의 구비 여부	14	4.7	11	18.6
	문화행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언론 보도	26	8.7	6	10.2
	복지기관장, 문화기관장 및 이웃들의 권유	58	19.3	8	13.6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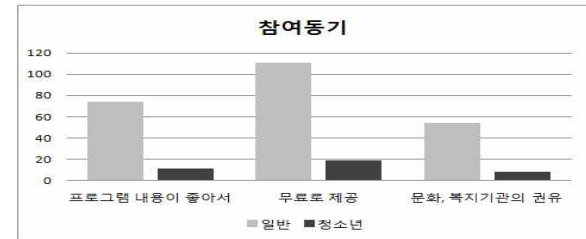
미참여 이유	기타	10	3.3	3	5.1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155	52.5	23	39.7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129	43.7	22	37.9
	공연 및 전시의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15	5.1	4	6.9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37	12.5	20	34.5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서	75	25.4	15	25.9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35	11.9	2	3.4
	교통이 불편해서	70	23.7	6	10.3
	시설(편의시설 포함)이 열악하고 불편해서	9	3.1	3	5.2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29	9.8	12	20.7
	기타	11	3.7	2	3.4

참고, 선택기준 : 다중응답, case percent 기준(일반 n=576, 아동청소년 n=111)
미참여 이유 : 다중응답, case percent 기준(일반 n=565, 아동청소년 n=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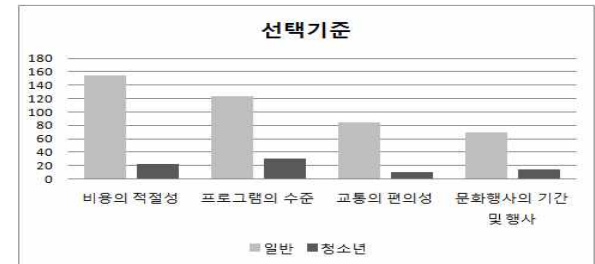


[그림 4-7]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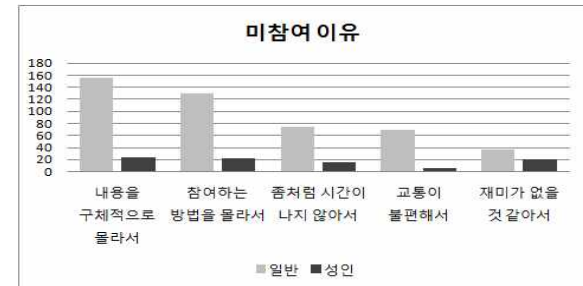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그림 4-8] 문화나눔사업 참여동기



[그림 4-9] 문화나눔사업 참여 선택기준



[그림 4-10]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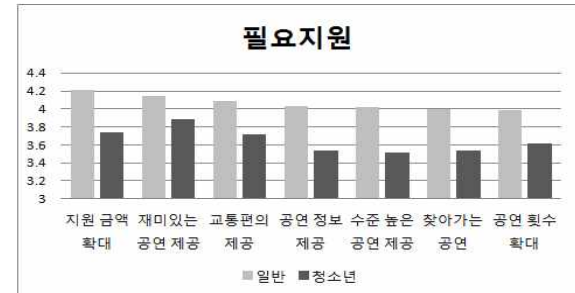
4. 공연예술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 공연예술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 파악을 위해 각 사업내용별로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의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각 응답의 분석결과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일반집단은 ‘지원금액 확대’ 4.21점, ‘재미있는 공연 제공’ 4.14점, ‘교통편의 제공’ 4.09점, ‘공연정보 제공’ 4.03점, ‘수준 높은 공연 제공’ 4.02점, ‘찾아가는 공연’ 4.00점 순으로 공연예술 참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동청소년은 ‘재미있는 공연 제공’ 3.88점, ‘지원금액 확대’ 3.74점, ‘교통편의 제공’ 3.72점, ‘공연 횟수 확대’ 3.61점, ‘찾아가는 공연’ 3.54점 순으로 공연예술 참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4-5> 공연예술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구분	항목	일반(n=373)		청소년(n=10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필요지원	지역 내 공연시설 확충	3.89	0.90	3.43	1.05
	수준 높은 공연제공	4.02	0.89	3.51	1.10
	재미있는 공연제공	4.14	0.84	3.88	1.06
	수도권 공연단의 지방 순회	3.81	0.93	3.38	1.12
	찾아가는 공연	4.00	0.92	3.54	1.08
	해설 있는 공연	3.85	0.96	3.35	1.11
	사전 교육 후 관람	3.57	0.96	3.16	1.17
	공연횟수 확대	3.99	0.90	3.61	1.10
	지원금액 확대	4.21	0.86	3.74	1.11
	교통편의 제공	4.09	0.91	3.72	1.11
	공연정보 제공	4.03	0.87	3.54	1.07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그림 4-11] 공연예술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5. 거주지역별 참여 만족도 및 향후 참여의향

- 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산어촌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문화나눔사업 참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도시지역의 경우 영화관람 3.89점, 연극 3.87점, 공연 및 전시관람 3.76점, 국내여행(관광) 3.74점, 음악 3.72점 순으로 사업의 참여 만족도가 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은 영화연극 4.10점, 영화관람 4.02점, 공연 및 전시관람 3.92점, 국내여행(관광) 3.85점, 도서 및 음반구입 3.73점 순으로 참여 만족도가 나타났다. 농산어촌은 연극 4.22점, 공연 및 전시관람 4.10점, 전통예술 4.06점, 국내여행(관광) 및 음악 3.99점 순으로 참여 만족도가 나타났다. 지역별 참여 만족도는 농산어촌 3.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도농복합지역 3.76점, 도시지역은 3.66점 순으로 도시지역에서 멀어 질수록 문화나눔사업의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참여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지역별 편차가 큰 프로그램은 공연 및 전시관람, 전통예술, 시각예술, 문학 등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문화나눔사업의 향후 참여의향을 분석하였다. 도시지역의 경우 영화관람 3.63점, 음악 3.49점, 연극 및 국내여행(관광) 3.45점, 도서 및 음반구입 3.35점, 예술일반 3.32점 순으로 사업의 참여의향이 나타났다. 도농복합 지역은 영화관람 3.76점, 연극 3.70점, 국내여행(관광) 3.63점, 예술일반 3.62점, 음악 3.57점 순으로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로 향후 참여의향이 나타났다. 농산어촌은 전통예술 4.07점, 영화관람 3.97점, 연극 3.91점, 공연 및 전시관람 3.88점, 국내여행(관광) 3.85점 순으로 참여의향이 나타났다. 향후 참여의향은 농산어촌 3.56점, 도농복합지역은 3.39점, 도시는 3.29점의 순으로 향후 참여의향을 보였으며,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연 및 전시관람, 전통예술 분야에서 더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거주지역별 참여만족도 및 향후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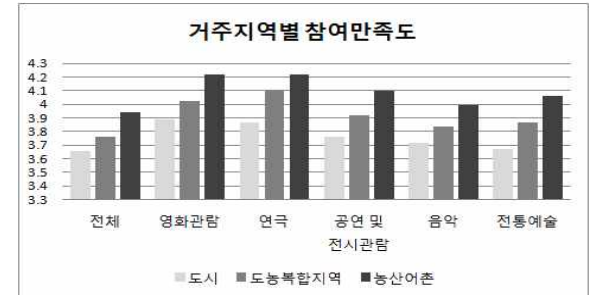
(n=373)

사업명	사업내용	도시 (n=160, 평균, 표본편차)		도농복합지역 (n=89, 평균, 표본편차)		농산어촌 (n=88, 평균, 표본편차)	
		만족도	참여의향	만족도	참여의향	만족도	참여의향
통합 문화 이용권	전체	3.66 (0.48)***	3.29 (0.80)**	3.76 (0.19)***	3.39 (0.78)**	3.94 (0.51)***	3.56 (0.81)**
	도시 및 읍면 구입	3.68 (0.68)*	3.35 (1.16)	3.73 (0.25)*	3.35 (1.06)	3.89 (0.73)*	3.26 (1.00)
	영화 관람	3.89 (0.63)**	3.63 (1.16)**	4.02 (0.45)**	3.76 (1.11)**	4.22 (0.84)**	3.97 (0.79)**
	국내여행 (관광)	3.74 (0.78)*	3.45 (1.25)**	3.85 (0.29)*	3.63 (1.14)**	3.99 (0.77)*	3.85 (0.95)**
	스포츠 관람	3.63 (0.65)*	3.16 (1.15)	3.63 (0.35)*	3.07 (1.17)	3.71 (0.55)*	3.22 (1.15)
	공연 및 전시 관람	3.76 (0.61)***	3.29 (1.09)***	3.92 (0.36)***	3.52 (1.15)***	4.10 (0.68)***	3.88 (0.88)***
	연극	3.87 (0.69)***	3.45 (1.17)**	4.10 (0.48)***	3.70 (1.00)**	4.22 (0.72)***	3.91 (0.87)**
	전통예술	3.67 (0.62)***	3.26 (1.09)***	3.87 (0.42)***	3.34 (1.18)***	4.06 (0.67)***	4.07 (0.91)***
사랑 티켓	음악	3.72 (0.69)**	3.49 (1.05)**	3.84 (0.39)**	3.57 (1.07)**	3.99 (0.67)**	3.57 (1.11)**
	다원예술	3.51 (0.63)**	3.10 (0.99)**	3.36 (0.23)**	3.26 (1.11)**	3.80 (0.71)**	3.26 (1.20)**
	예술일반	3.64 (0.67)**	3.32 (1.07)*	3.78 (0.44)**	3.62 (1.11)**	3.85 (0.72)**	3.31 (1.19)**
방방 곡곡 문화 공간	무용	3.55 (0.63)**	3.20 (1.03)**	3.59 (0.23)**	3.01 (1.03)**	3.82 (0.81)**	3.32 (1.20)**
	시각예술	3.46 (0.60)***	2.96 (1.05)**	3.51 (0.22)***	3.11 (1.00)**	3.81 (0.91)***	3.33 (1.32)**
	문학	3.47 (0.54)***	3.12 (1.02)*	3.52 (0.33)***	3.10 (1.07)*	3.84 (0.71)***	3.24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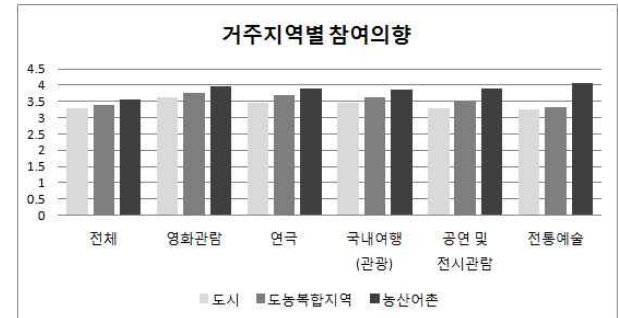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생활문화	문화예술 활동	3.66	3.30	3.76	3.44	3.90	3.70
공동체	참여	(0.68)**	(1.04)**	(0.30)**	(1.07)**	(0.77)**	(0.91)**

주 *** p<0.001, **p<0.1, *p<0.5



[그림 4-12] 거주지역별 참여만족도



[그림 4-13] 거주지역별 향후 참여의향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6. 거주지역별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동기, 선택기준, 미참여 이유

- 거주지역별로 참여경로가 어떠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도시지역은 '지역의 문화 및 복지관련 기관을 통해서' 56.0%, '주위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24% 순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은 '지역의 문화 및 복지관련 기관을 통해서' 49.2%, '주위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26.2% 순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은 '지역의 문화 및 복지관련 기관을 통해서' 53.0%,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24.1%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참여동기를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은 '무료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37.1%, '문화나눔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27.4%, '지역의 문화, 복지관련 기관의 권유로' 19.4% 순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 지역은 '무료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31.1%, '문화나눔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23%, '지역의 문화, 복지관련 기관의 권유로' 21.3% 순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은 '무료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43%, '문화나눔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24.4%, '지역의 문화, 복지 관련 기관의 권유로' 17.4%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참여동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로 문화나눔사업 참여의 선택기준을 2가지로 다중응답을 통해 조사하였다. 도시는 '비용적절성' 36.2%, '프로그램의 수준' 29.6%, '교통의 편의성' 20.9% 순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은 '프로그램의 수준' 18.4%, '비용의 적절성' 11.2%, '교통편의성' 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와 도농복합지역은 선택 기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은 '비용의 적절성' 18%, '프로그램의 수준' 과 '문화행사의 기간 및 행사' 9.2%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로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기를 2가지로 응답하도록 하여 분석하였다. 도시지역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23%,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16.2%, '교통이 불편해서' 14.7% 순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11.5%,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7.9%,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서' 6.8% 순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은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20.1%,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18.3%,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서' 9%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참여 방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지역별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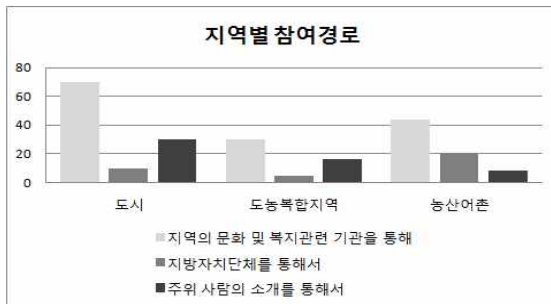
로 차이가 높게 나타나 참여자에게 구체적 정보제공을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표 4-7> 거주지역별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동기, 선택기준, 미참여 이유

구분	항목	(n=373)					
		도시 (n=125)		도농복합지역 (n=61)		농산어촌 (n=83)	
		빈도	%	빈도	%	빈도	%
참여경로	지역의 문화 및 복지관련 기관을 통해	70	56.0	30	49.2	44	53.0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10	8.0	5	8.2	20	24.1
	주위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30	24.0	16	26.2	8	9.6
	부모 등 가족을 통해서	0	0	0	0	5	6.0
	인터넷을 통해서	8	6.4	4	6.6	1	1.2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3	2.4	2	3.3	5	6.0
참여동기	기타	4	3.2	4	6.0	0	0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 내용 좋아서	34	27.4	14	23.0	21	24.4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46	37.1	19	31.1	37	43.0
	지역의 문화, 복지 관련 기관의 권유로	24	19.4	13	21.3	15	17.4
	지인(친구, 선생님)의 권유로	10	8.1	9	14.8	8	9.3
	부모 혹은 자녀 등 가족의 권유로	3	2.4	0	0	0	0
선택기준	기타	7	5.6	6	9.8	5	5.8
	비용의 적절성	71	36.2	22	11.2	51	18.0
	프로그램의 수준	58	29.6	36	18.4	26	9.2
	문화행사의 기간 및 행사	22	11.2	19	9.7	26	9.2
	주최단체, 출연진의 유명도	12	6.1	9	4.6	10	3.5
	교통의 편의성	41	20.9	20	10.2	16	5.7
	편의시설(놀이방 등)의 구비 여부	7	3.6	3	1.5	4	1.4
	문화행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언론 보도	9	4.6	0	0	17	6.0
	복지기관장, 문화기관장 및 이웃들의	28	14.3	11	5.6	16	5.7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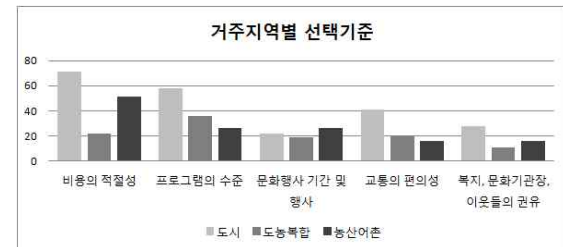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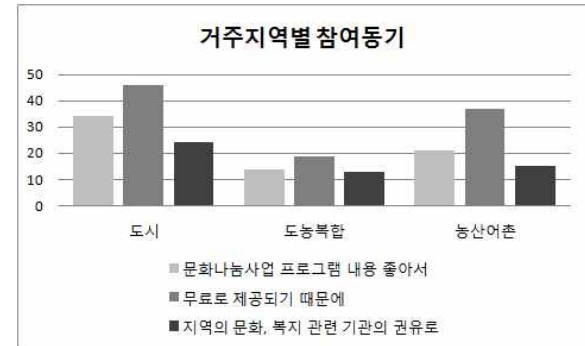
	권유						
	기타	6	3.1	1	0.5	3	1.1
미참여 이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64	23.0	32	11.5	51	18.3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45	16.2	22	7.9	56	20.1
	공연 및 전시의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6	2.2	3	1.1	6	2.2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17	6.1	4	1.4	9	3.2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서	28	10.1	19	6.8	25	9.0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20	7.2	9	3.2	5	1.8
	교통이 불편해서	41	14.7	15	5.4	8	2.9
	시설(편의시설 포함)이 열악하고 불편해서	3	1.1	4	1.4	1	0.4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17	6.1	9	3.2	3	1.1
	기타	6	2.2	1	0.4	4	1.4



[그림 4-14] 거주지역별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그림 4-15] 거주지역별 문화나눔사업 참여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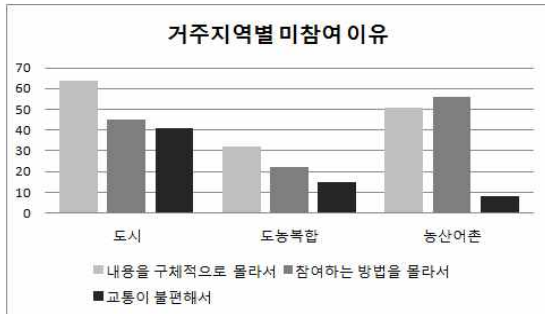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그림 4-16] 거주지역별 문화나눔사업 선택기준

[그림 4-17] 거주지역별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7. 장애유무에 따른 문화나눔사업 참여 만족도와 향후 참여의향

□ 장애유무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참여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장애가 없는 집단의 참여만족도는 연극 4.05점, 공연 및 전시관람 3.90점, 전통예술 3.85점, 음악 3.80점, 국내여행(관광)과 도서 및 음반구입이 3.76점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영화관람 4.03점, 연극 3.95점, 국내여행(관광) 3.92점, 공연 및 전시관람 3.87점, 음악 3.83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참여 만족도는 장애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유무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향후 참여의향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가 없는 집단은 영화관람 3.70점, 연극 3.56점, 공연 및 전시관람 3.36점, 국내여행(관광) 3.32점, 예술일반 3.30점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집단은 국내여행(관광), 사업내용 3.86점, 영화관람 3.74점, 음악 3.57점, 예술일반 3.53점, 연극 3.46점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에 따른 향후 참여의향은 장애가 있는 집단이 3.41점, 장애가 없는 집단이 3.24점으로 장애가 있는 집단의 향후 참여 의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에 따른 집단별 사업내용은 국내여행(관광), 스포츠 관람 등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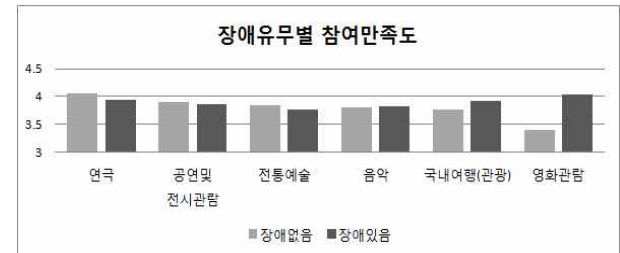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표 4-8> 장애유무에 따른 문화나눔사업 참여만족도와 향후참여의향

(n=373)

사업명	사업내용	장애없음 (n=210, 평균, 표준편차)		장애있음 (n=145, 평균, 표준편차)	
		만족도	향후참여의사	만족도	향후참여의사
	전체	3.75(0.30)	3.24(0.93)*	3.76(0.59)	3.41(0.88)*
통합문화 이용권	도서 및 음반 구입	3.76(0.50)*	3.18(1.26)*	3.68(0.74)*	3.38(1.03)*
	영화 관람	3.40(0.56)	3.70(1.22)	4.03(0.78)	3.74(1.03)
	국내여행(관광)	3.76(0.53)*	3.32(1.29)***	3.92(0.85)*	3.86(1.08)***
	스포츠 관람	3.63(0.42)**	3.02(1.26)***	3.65(0.92)**	3.35(1.15)***
	공연 및 전시관람	3.90(0.48)	3.36(1.23)	3.87(0.71)	3.43(1.11)
신나는 예술여행	연극	4.05(0.50)*	3.56(1.21)**	3.95(0.81)*	3.46(1.11)**
	전통예술	3.85(0.48)*	3.22(1.24)	3.77(0.74)*	3.34(1.15)
사랑 티켓	음악	3.80(0.47)*	3.24(1.20)**	3.83(0.79)*	3.57(1.12)**
	다원예술	3.55(0.68)*	3.01(1.21)	3.66(0.77)*	3.17(1.13)
	예술일반	3.71(0.47)*	3.30(1.24)**	3.77(0.79)*	3.53(1.3)**
방방곡곡 문화 공감	무용	3.64(0.41)	2.97(1.19)*	3.64(0.81)	3.19(1.22)*
	시각예술	3.53(0.40)	2.93(1.16)*	3.57(0.90)	3.12(1.27)*
	문학	3.53(0.36)*	2.92(1.19)**	3.64(0.78)*	3.21(1.10)**
생활문화 공동체	문화예술활동 참여	3.78(0.48)*	3.28(1.20)*	3.67(0.81)*	3.35(1.06)*

주 *** p<0.001, **p<0.1, *p<0.5



[그림 4-18] 장애유무별 참여 만족도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그림 4-19] 장애유무별 향후 참여의향

8. 장애유무에 따른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동기, 선택기준, 미참여 이유

- 장애유무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참여경로를 분석하였다. 장애가 없는 집단은 '지역의 문화 및 복지관련 기관을 통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주위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24.2%로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집단은 '지역의 문화 및 복지관련 기관을 통해' 51.6%,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20.2%, '주위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13.7%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유무에 따른 참여동기를 살펴보면, 장애가 없는 집단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39%,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25.3%, '지역의 문화, 복지관련 기관의 권유로' 16.2%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집단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38.4%,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25.6%, '지역의 문화, 복지 관련 기관의 권유로' 21.6%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에 따라 참여동기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유무에 따라 문화나눔사업의 선택기준을 살펴보면 장애가 없는 집단은 '비용의 적절성' 32.1%, '프로그램의 수준' 27.6%, '문화행사 기간 및 행사' 14.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비용의 적절성' 20.3%, '교통의 편리성' 16.2%, '복지기관 등 이웃의 권유' 13.8%, '프로그램의 수준' 13.4% 순으로 나타났다.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장애를 가진 집단의 경우 이동의 편리성이 문화나눔사업의 선택에 주요한 기준 중 하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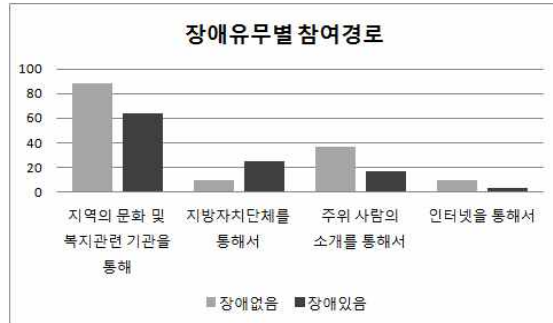
-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장애유무별로 살펴보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33.1%,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21.2%,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서' 18.8%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집단은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23.2%,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20.1%, '교통이 불편해서' 15.8% 순으로 나타나 장애가 없는 집단에 비해서 이용의 접근성이 문화나눔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표 4-9> 장애유무에 따른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동기, 선택기준, 미참여 이유 (n=373)

구분	항목	장애없음 (n=153)		장애있음 (n=124)	
		빈도	%	빈도	%
참여경로	지역의 문화 및 복지관련 기관을 통해	88	57.5	64	51.6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10	6.5	25	20.2
	주위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37	24.2	17	13.7
	부모 등 가족을 통해서	1	0.7	4	3.2
	인터넷을 통해서	10	6.5	3	2.4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1	0.7	9	7.3
	기타	6	3.9	2	1.6
참여동기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39	25.3	32	25.6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60	39.0	48	38.4
	지역의 문화, 복지 관련 기관의 권유로	25	16.2	27	21.6
	지인(친구, 선생님)의 권유로	17	11.0	9	7.2
	부모 혹은 자녀 등 가족의 권유로	2	1.3	1	0.8
선택기준	기타	11	7.1	8	6.4
	비용의 적절성	93	32.1	59	20.3
	프로그램의 수준	80	27.6	39	13.4
	문화행사의 기간 및 행사	42	14.5	26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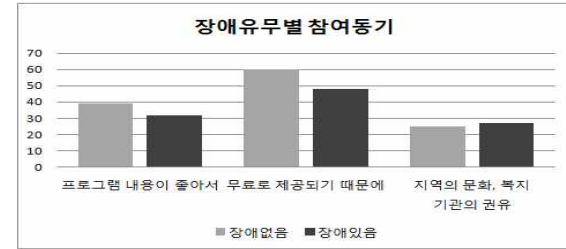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미참여 이유	주최단체, 출연진의 유명도	19	6.6	14	4.8
	교통의 편의성	34	11.7	47	16.2
	편의시설(놀이방 등)의 구비 여부	6	2.1	7	2.4
	문화행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언론 보도	15	5.2	11	3.8
	복지기관장, 문화기관장 및 이웃들의 권유	17	5.9	40	13.8
	기타	6	2.1	4	1.4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94	33.1	57	20.1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60	21.1	66	23.2
	공연 및 전시의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9	3.2	6	2.1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17	6.0	18	6.3
	준비시간이 나지 않아서	51	18.0	22	7.7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24	8.5	8	2.8
	교통이 불편해서	24	8.5	45	15.8
	시설(편의시설 포함)이 열악하고 불편해서	5	1.8	4	1.4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17	6.0	10	3.5
	기타	5	1.8	6	2.1



[그림 4-20] 장애유무별 문화나눔사업 참여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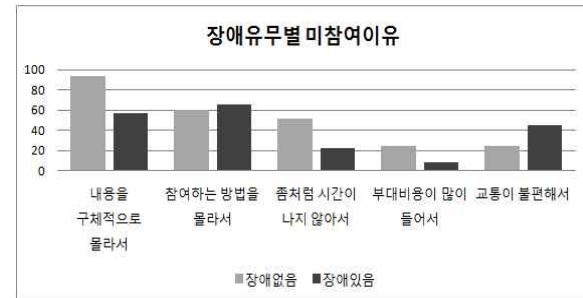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그림 4-21] 장애유무별 문화나눔사업 참여동기



[그림 4-22] 장애유무별 문화나눔사업 선택기준



[그림 4-23] 장애유무별 문화나눔사업 미참여 이유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제3절 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결과 분석

- 북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문화소의계층) 욕구조사 연구를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크게 문화나눔사업 대상(문화소의계층), 문화나눔사업 내용(컨텐츠), 문화나눔사업 전달체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표 4-10>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문화소의계층) 전문가 FGI 발견 내용 요약

구분	중범위	주요내용
문화나눔사업 대상(문화소의계층) 재규정	대상 재규정 및 확대	- 문화복지에 대한 관점(문화의 복지화 혹은 복지의 문화화)과 사회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대상의 다각화 요구됨 - 경제적으로인 외 물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문화소의계층으로의 확대 필요
	대상별 접근방법	- 대상에 따라 욕구별 혹은 보편적 접근 등 접근방법의 다양화 필요
문화나눔사업 내용 구성 및 적절성	컨텐츠의 질과 다양성	- 문화나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질적 향상 필요
	컨텐츠의 정체성(초점)	- 대상별 문화나눔사업 내용의 차별화 - 문화예술 프로그램 VS 여가 프로그램
	문화소비 방식	- 수동적 방식에서 참여형 방식으로 - 소비적 방식에서 생산형 방식으로
문화나눔사업 전달체계 방식 및 역할	사회복지시설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향상을 위한 여건 마련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 문화예술향유가 지역사회중심의 삶이 되도록 지원 마련
	지역주관처 (지역문화재단 외)	-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기획과 진행을 위한 지역주관처의 자율성 보장
	문화복지 매개인력	- 문화나눔사업의 효과적인 진행과 인식변화 역할자로서 매개인력 필요
	전달체계 방식	- 현 전달체계 방식 재고
	전달체계 측면의 정책적 지원	- 편의시설, 행정절차, 추가비용 등에 대한 지원 필요
문화나눔사업 정책목표 및 방향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 및 방향성 재고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가. 문화나눔사업 대상(문화소의계층) 관련 논의

- 문화나눔사업 대상(문화소의계층)관련 논의는 다시 대상의 적절성, 대상 확대, 대상에 따른 상이한 접근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구조화된다.

1) 문화나눔사업 대상에 대한 재규정 필요

- 문화나눔사업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문화나눔사업의 대상들에게 사업이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사업의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다른 시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특히, 학계 전문가들은 문화복지를 문화의 복지화로 볼 것인지 복지의 문화화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문화나눔사업의 대상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2003년 이후 문화복지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극적인 문화향유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에 따라 차상위 계층이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한 문화소외를 경험하는 자들을 포함하지 못해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계의 이유가 경제적 문제인지, 사회문화적인 문제인지는 좀 더 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경제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접근을 해왔지만 경제적 문제가 사회문화적 문제와 맞물려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여러 형태의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시도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도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이제 문화복지가 문화의 복지화 형태라면 복지의 대상층이 다각화 되는 거거든요. 과거처럼 최저빈곤선의 형태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범도 개정되고, 대상층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상층 설계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개인단위로 할 것인지, 가정이나 집합단위로 할 것인지, 생애과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단위로 할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문화나눔사업 대상 확대 필요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 문화나눔사업 대상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기존의 사업 대상자인 경제적 소외계층은 문화혜택의 기회가 거의 없고 문화를 스스로 향유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도 매우 제한적이므로 일차적 문화나눔사업이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경제적 소외계층 이외에도 문화소외계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문화소외계층을 경제적 소외계층과 함께, 지리적, 사회적 소외계층을 포함한 것을 지지하는 논의이기도 하며, 복지의 대상과 방향을 경제적 지원에서 나아가 정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지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통합적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기업들 공연의 경우 경제적 소외계층 외에도 지리적, 사회적 소외계층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군인, 재소자, 분교 등 지리적, 물리적으로 문화향유가 어려운 경우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문화복지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합니다. 문화복지의 대상은 훨씬 보편적으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문화생활 향유를 원하나 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럽에서 배제논의를 많이 가져오는데, 문화분야에서는 사실 배제된 계층만이 문제가 아니라는게 일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배제된 계층은 완전히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배제된 다중빈곤을 경험한 계층인데 문화적 불평등은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 이상의 계층에서도 불평등이 많이 나타나는 현실이어서 많은 학자들도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문화복지나 문화불평등 해소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보다 보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대상별로 문화나눔사업 제공에 있어서,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안되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문화나눔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이기보다는 보다 주체화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 관람의 장애요인에 대해 물어본 항목에 경제적 장애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분야는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예술이었어요. 이런 걸 감안해서 차상위계층 이상, 초과계층은 공연과 전시에 국한한다든가 해서 통합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문화이용권 사용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예술단체나 공공예술기관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중간층까지 포함을 시키면 큰 예산증액 없이 문화예술 향유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문화를 통해 주체의 자각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에 맞는 방식이 있을 거고, 노인은 변화된 노인에 맞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노인문제는 여가문제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2의 삶의 문제, 제3의 삶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 안에는 주체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남은 삶을 내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거죠.”

“문화를 매개로 하든, 교육을 매개로 하든, 자기가 이전에 직업적으로 쌓아온 커리어를 가지고 제2의 삶, 제3의 삶을 통해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하는 의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의 노인은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다른 걸 거의 못했던 노인이지만, 앞으로의 노인세대들은 이미 문화적 경험들을 나름대로 다 하고 온 사람들이고 제2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식도 다 갖춘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는 다른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다 보편적 접근 필요

- 경험제인 문화예술재의 특성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다 보편적으로 사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중위소득 40% 보다 보편적 기준을 적용한 본 연구의 접근방법과도 맥을 같이하는 제안이다. 더불어 최근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여가시간의 상당부분을 보냄으로써 오프라인에서의 여가 향유방법에 대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반적 관점에서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적극적으로 문화향유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의 어르신들처럼 어려서부터 문화향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문화향유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문화가 가치제면서 경험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문화자본이 형성되기 때문에 학교 등을 통해 보다 보편적 관점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 아동들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들도 함께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교육의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문화자본을 형성해 내는 것을 바탕으로 교류를 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나중에 경제적 자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구요.”

“부모님에 의해서 아이들이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보람을 느끼고 달라지는 경우를 보곤 해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향유주체가 되어 즐기는 모습을 보면 기회제공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은 SNS를 통한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공연감상과 같은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있어 막연하게 어렵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막상 경험해보면 즐거워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빈곤·청소년의 경우, 문화향유의 기회도 부족할 뿐더러 스스로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선택조차 할 수 없기에 학교에서부터 향유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음악영재교육분야에서는 대부분 중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는 대상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에 기준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대상별 접근이 아닌 욕구별 접근이 필요

- 현재의 문화나눔사업 대상이 욕구적인 측면보다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전문가·제공자가 대상별 욕구를 결정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논의되었다. 나아가 현재의 전문가·제공자 중심의 방식에서 이용자 욕구 중심으로의 전환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욕구적인 측면보다는 상황적인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 내용이 구성되고 있어요.”

“현재 방식은 행정 편의적으로 경제적 기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향유하지 못하는 대상층에 대해서 발굴하고 이들의 욕구에 근거한 사업내용 구성이 필요합니다.”

나. 문화나눔사업 내용구성 및 적절성 관련 논의

1) 문화나눔사업의 질적향상 필요: 콘텐츠의 다양화와 질 향상

- 공연관람의 이해와 재미를 높이기 위한 구성(예: 해설이 있는 공연)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공연관람과 관련된 기념품 제공도 유익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해설이 있는 발레’ 같은 것을 아이들이 같이 본다면 이해도 빠르고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테고 문화를 접해 볼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과 연관된 기념품(예를 들면 호두까기 인형)도 제공되면 평생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평생 연극을 보는 기회는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연극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연극이라는 게 먼 것이 아닌데,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할 때 관심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과 멀어지는 이유는 엘리트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화조성 때문인데, 신나고, 재미있고, 쉽고, 리듬감 있는 내용으로 연극을 구성해 가면서 대중문화로 자리매김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연극보다는 뮤지컬에의 참여가 많은 것은, 뮤지컬이 보다 쉽기 때문이에요. 쉬고 싶은데 짜고 힘든 것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 언어적 소통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으로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까지 포함하는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주여성들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타 프로그램은 언어를 몰라도 모두 느낄 수 있지요.”

- 이용시설은 이용자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시설은 찾아가는 형태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생활시설일 경우 대상자들을 모시고 이동해서 공연을 하나 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교통편과 식대, 간식비도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문화예술향유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형태로 제공받았다면 더 편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시설에 있는 분은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문화활동에 노출되는 빈도나 학습에 따른 욕구형성 정도가 낮기 때문에 시설을 중심으로 문화향수는 문화예술 교육이든 간에 찾아가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단순히 발급율과 소진율을 중심으로 한 사업진행으로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나눔사업 중 일부가 TV프로그램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아가 문화나눔사업의 대상 및 사용기준을 연령대별, 소득계층별로 재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문화재화의 경험재적 숙성을 무시한 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역량이나 선호가 형성되지 못한 이들에게 그저 ‘일회성’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고해봐야 합니다.”

“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각 광역단체의 문화재단들이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 문화재단만 보더라도 너무 정량적 목표에 급급해요. 그래서 이 카드를 제 때 세 숫자 만큼 발급하느냐, 수혜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매달려 거의 군사작전처럼 노인들을 양로원에서 막 데려와서 공연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기간 내 신청하기만 하면 주니까, 양과 질에 있어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해야 할 단계에 왔지 않나.. 너무 양적 확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걸 보는게 효과가 있고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문화적인 경험이 되지, TV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면 과연 문화향수의 의미와 문화예술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2) 문화나눔사업의 콘텐츠와 정체성에 대한 재규정 필요: 대상별 문화나눔사업 내용의 차별화 필요에 대한 고민과 문화나눔사업의 정체성을 문화예술 프로그램 vs. 여가 프로그램 중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 문화나눔사업이 문화예술적인 측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가의 측면을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되면서 관광을 많이 가는데, 이왕 가느거 관광적인 요소에 지역 문화탐방과 같이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5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모든 것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추가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그냥 단편적인 관광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머스타고 여행하면서 음식 먹고 체험 하나 하고 끝나는 여행상품이 많은데, 이런건 좀 생활 측면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 우리가 문화라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여가적인 측면인지 문화예술의 측면인지 그런 것도 조금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급자 측면에서, 특히 관광업계의 측면에서 5만원짜리 상품을 만들다보면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자꾸 여가 쪽으로 가는 원인 중 하나가 금액의 적절성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실시 등 문화예술을 여러 다른 분야와 접목하는 것은 의미 있어요. 그러나 방법적인 부분은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수단으로만 만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3) 문화소비 방식의 변화 필요: 수동적·소비적 콘텐츠에서 참여형·생산형 콘텐츠로

- 문화나눔사업의 내용이 소비하는 방식의 문화가 아니라, 생산을 함께 하거나 아니면 생산의 경험과 그 속에서 형성되는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함께 문화와 가치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함).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문화예술이 특정한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향유하고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면 해요. 개인이 향유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넘어 사회통합과 공동체형성에 주요한 매개로서 작용하고 발전했으면 해요.”

“지금까지는 전 사업이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들이 왜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능동적이지 않는다는 거...”

또한 최근 강조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을 속 커뮤니티 거점공간(작은 도서관, 마을카페 등)들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하고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문화나눔사업도 과거와 같이 문화기획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방식에서, 요새 흔히 말하는 마을공동체 방식이나 지역사회의 협동조합과 같은 방식과 같은 참여형, 활동형 사업을 통해서도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 생산과 향유가 마을 속에서 함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은 거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슷한 생각, 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는 문화예술이 매개가 되어 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문화나눔사업 전달체계 방식 및 주체별 역할 관련 논의

1) 사회복지시설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및 이해 낮음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 및 입소자들의 문화향유는 기관 담당자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인식과 만족감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만큼 사회복지사들의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업무와 중으로 문화체험을 위한 정보수집과 활동을 위한 노력들을 할 여력이 없다는 논의 또한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전문가 대상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문화복지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유 관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안되었다.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업무과중에 시달리는데, 문화체험이나 향유기회가 생겨도 이것을 하나의 성가신 ‘일’처럼 처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메르스 이후에 1+1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볼 수 있는 혜택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것을 신청하고 대상자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 관련업무가 많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통합문화이용권 제도가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나, 대부분 영화관 이용에 그치고 있어요. 이는 상당부분 문화복지에 대해 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강사나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외주를 맡기는 경우에 프로그램보다 기획사가 가져가는 비용이 많은 데에도 일부 기인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함

- 문화나눔사업 전달에 있어서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 강화: 최근 도서관에서는 독서와 독후활동, 토크와 북콘서트와 같은 융합적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지역마다 작은 도서관형태의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일상생활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문화도 지역사회내에서 하나의 운동(movement)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지역 곳곳에 작은 도서관 형태의 문화시설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몸에 배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도 하나의 운동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크고 거대한 시설’에서 하는 것이 문화예술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에 가서 공연을 보는 것 만이 문화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 속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3) 문화나눔사업 지역주관체(시행처): 자율성 보장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 문화나눔사업 지역주관처(시행처)들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역주관처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단체의 장들이 문화나눔사업을 수동적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문화나눔사업을 하면서도 재단 사람들이 보람을 못 느끼는 이유는, 본인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여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업의 주체는 재단인데 실제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주는 자유로운 여지는 거의 없어요. 말하자면 책임만 주고 자유롭게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여지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을 넘겨주더라도 서울시가 매칭하는데, 서울형 문화복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거기서 좀 더 확대된 계층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더 예산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럴 여지가 너무 없어요.”

4) 문화복지매개인력: 문화나눔사업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필요함

- 문화나눔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문화매개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안되었다.

“제가 시골에서 동네 분들에게 공연, 극장 이런 걸 누가 가져가고 연락이 와서 같이 간 적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통합문화이용권만 갖고 보더라도 문화 매개인력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아 문화예술 향유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5) 현재의 전달체계 방식에 대한 논의

- 현재의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으로는 소진율이 낮은 대상의 경우, 문화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것으로 간주하여 차기 신청에서 제외하고 문화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통합문화이용권과 같은 바우처 형태의 지급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제안되었다.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소진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그 다음해에도 또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패널티 같은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나눔사업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고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있어 시스템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들의 특성을 잘 살펴서 그들에 맞는 문화로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시장에 맡겨버리는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바우처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우처 방식이라는게 결국은 상품의 소비를 이용자가 선택하게 만드는 방식인데 아직도 문화시장에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 학습의 단계가 높아진다는 성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공돈이라는 생각이 강하고 공돈을 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정책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한데, 이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문화자본이나 문화에 대한 욕구형성이 미흡하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소진율이 낮다고 하여 배제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 한번쯤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문화가 가진 풍요로움과 가치를 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배제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화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6)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제도적 지원필요: 공연시간 다양화 등

- 문화예술공연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과 공연 관람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 공연시간 다양화, 공연시간 동안의 탁아시설, 공연해설 및 해석자막 마련 등

“좋은 공연은 많으나 접근성이 편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연은 공연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대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은 8시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문화복지를 고려할 때 개인 뿐 아니라 가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심라정서적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나 아이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 경우, 엄마가 공연을 보는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이 필요하지요.”

“더문화가정도 많이 있는데, 좀더 많은 대상이 참여하도록 두 가지 언어나 공연에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대한 설명을 화면에 띄워주는 부분의 고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연시설의 편의성은 큰 공연장 이외에 작은 공연장까지도 확대되어야 하고요.”

“아이나 아빠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밀리는 부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문화나눔사업 시행 시, 공연관람을 위한 행정절차(사랑티켓 참가자 전원 입력 등)와 추가비용(보험가입, 공연료 추가 등), 단체입술(차량, 대중교통, 안전) 등의 어려움이 논의되었으며, 더불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하는데 규제가 심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 보험을 들어야 하고...”

“이동용 난타공연 같은 경우는 티켓구매에 비용이 추가로 들고, 신나는 예술여행이나 찾아가는 공연은 행사성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관에서는 한번 밖에 이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고 사랑티켓은 이용하려면 인당입력을 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복잡해요. 실무를 하면서 부수적인 업무가 너무 많아요. 문화활동을 나가면 보험을 들어야 하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 등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되는 비용보다 가외비용이 훨씬 많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 정책목표 달성: 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과 정책의 방향에 대한 본질적 고민 필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화복지의 정책 목표달성이 과연 시장을 통해 가능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문화나눔사업을 통해 어떻게 삶의 양식을 바꿔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문화나눔사업의 정책목표 및 방향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소비적인 삶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받아내는 방식의 문화나눔사업이 과연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에 맞는 건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코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인지 전체적으로 삶의 양식의 변화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를 만들어내는 계기를 만들어 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 정책목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은 무엇이 삶의 질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공연장도 한번 가보고 미술관도 한번 가봐 라는 방식은 이제 좀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이 또한 제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확대, 보다 체계적이며 상시적 전달체계 마련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 등이 논의되었다.

“수혜자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나 효용성, 효능감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사업을 통해 문화의 가치를 느껴본 이들은 보다 반복적인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에서는 문화복지사업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대상자의 공유 및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사업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복지정책은 주민과의 대면적 접촉이 매우 중요한 분야인 만큼 지역주민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민이 쉽게 문화복지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물리적 공간의 형태로도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가칭 문화복지 지원센터라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문화복지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주관하는 담당인력과 매개인력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주민에 대한 프로그램 및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 특히 최근에 설립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함께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는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문화복지 지원센터의 운영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복지부 대상에 일단 따르고, 이에 덧붙여 아동청소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주는데, 그것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가의 문제는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통합이용권을 모아서 여행을 가는 경우들이 많고, 기획사들이 결합해서 물건을 사게 하는 등의 문제, 통합이용권의 서비스영역이 확대되면서 교재를

제4장 문화나눔사업 대상 추계 및 욕구조사 분석 결과

사거나. 문방구에서 장난감, 우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통합문화이 용권 안에 쓸 수 있는 폭이 넓어 문화적 접근보다는 다른 형태의 접근들이 많아져 이에 대한 분리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농촌과 도시의 상황이 달라 지역적 편차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1. 문화나눔사업 대상 개념화와 재규정
2. 문화나눔사업 전달체계
3. 문화나눔사업 사업구성 및 내용

제5장 결론 및 제언

결론 및 제언

1. 문화나눔사업 대상 개념화와 재규정

-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나눔사업의 대상에 대한 선별적 접근은 첫째, 경험제이자 예술제라는 문화향유의 특성, 둘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즉 경제적 소외계층 외에도 사회적, 지리적 소외계층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경험제라는 문화예술 향유의 특성상,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편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에 본 연구 또한 대상자 추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다 보편적으로 교육급여 대상자 기준인 50%에 맞추어 1단계 경제적 소외계층을 추계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문화나눔사업의 대상을 교육사업의 대상과 양립해 나가기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문화나눔사업 제공에 있어서 대상별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의 경우 전통적으로 수동적 방식으로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왔으나,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어 선택하고 향유할 때 높은 만족도를 보임을 고려할 때, 문화공동체, 협동조합 활용 등 보다 이용자가 주체가 되는 방식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또한 욕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문가·제공자 중심의 방식에서 이용자 욕구중심으로 전환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정책가 혹은 전문가들이 설정한 경제적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규정되고 있는 방식이나, 이용자 중심으로 문화향유 욕구수준 및 유형에 따라 사업내용 구성이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 소외계층 문화사업 다양화를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반영한 대상자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서해5도 특별지원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문화예술 지원을 시작하였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공연계를 돕기 위하여 1+1 티켓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입원자와

제5장 결론 및 제언

만성질환자 대상의 문화나눔 사업실시 시,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요양병원, 소아병원과 같이 장기입원자 비율이 높은 병원을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해가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시, 도서산간 농어촌지역, 학교, 군부대, 임대주택 단지과 같은 문화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형 사업들을 구상하고 기존의 순회사업을 해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곳의 문화시설은 매우 부족하다.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 강당과 같은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나눔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고, 많은 곳들이 벤치마킹하여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나눔사업 전달체계

- 지역 문화재단 등 문화나눔사업 시행체들의 경우 정량적 목표 달성 정도로 사업 수행 정도가 평가되고 있다. 이는 사업 시행체들이 수혜자 수와 사업 횟수, 카드 발급율과 소진율과 같은 정량적 목표 달성에 집중하도록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동안 문화나눔사업은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이제는 질적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 통합문화이용권이 여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편되고 통합문화이용권을 중심으로 문화나눔사업이 확대되면서, 문화나눔사업에서 문화예술향유와 여가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상당수가 관광, 스포츠 등 여가 프로그램 이용에 이용권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방향이 기존의 문화예술향유 기회제공 및 확대라는 문화나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스포츠 여가에의 집중이 이용자들의 욕구에 근거한 것인지, 통합문화이용권 한정된 이용금액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제공자들의 편의에 근거하는 것인지에 대해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 스포츠와 같은 여가 프로그램과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들이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닌 생산하고 참여를 통하여 주체가 되어

제5장 결론 및 제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지역 문화재단 등 문화나눔사업 시행처들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사실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사업 목표달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지역 특성, 대상자의 특성, 욕구 특성을 고려하여 각 시행처들이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최근 강조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하여 문화를 생산하고 기획하여 향유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마을 속 커뮤니티 거점공간인 작은 도서관, 마을카페 등과 같은 공간을 활용하고 마을 커뮤니티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하고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참여자들이 문화향유 뿐만 아니라 역량이 강화되고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 기존에는 문화를 기획하고 보급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단절지만, 이제는 이 둘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문화예술이 매개가 되어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를 통하여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면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향유욕구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각 지역마다 거점공간이 만들어져 매개인력이 상주하면서 프로그램 및 정보를 통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기관 담당자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만족감 정도에 따라서 이용자 및 입소자들의 문화향유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담당자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여력이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것 역시도 하나의 업무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강사나 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도 외주를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기획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관에서 직접 할 수 없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들에 의해서 기관에서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보 제공을 받고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3. 문화나눔사업 사업 구성 및 내용

- 문화나눔사업이 문화향유증진과 문화양극화해소의 목적달성을 위한 장기적 해결 방안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향상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나눔사업 시행초기부터 문화나눔사업의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실제 본 연구의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성인들의 문화나눔사업의 참여율은 86~90%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성인과 청소년의 참여율을 비교하면, 성인의 참여율보다는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사업 참여 후의 만족도는 성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문화나눔사업 참여률의 증진을 위한 노력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들의 문화나눔사업의 참여경험들이 문화나눔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향유 저변확대와 문화의 양극화를 해소할수 있는 문화복지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문화와 교육을 연계하여, 이들의 문화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시설 이용시 무료혜택과 교육프로그램 할인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이 평등하게 문화자본을 가질 수 있는 기회창출을 통해 생성된 문화자본들은 그 영향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 욕구를 양육과 교육의 모든 과정에 도입해 가고 있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학교) 차원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공적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단순히 개인을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지원과 함께 아동청소년들이 있는 가정에서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활동의 인식 제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기적인 문화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 문화복지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활동전반에 걸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정책과 제도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수요조사에 따르면 문화나눔사업의 참여률, 참여만족도, 향후 참여의향은 영화관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응답자와 아동청소년들의 이용하는 사업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우선적 콘텐츠로 영화관람을 가장 선호하는 것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문화나눔사업의 참여동기는 일반응답자와 아동청소년 모두에서

제5장 결론 및 제언

비용(무료)과 사업의 컨텐츠가 좋아서이며, 사업참여시의 선택기준도 비용과 프로그램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문화나눔 사업에 비용과 컨텐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향수 실태조사(2014.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장 많이 관망하고, 높은 참여만족을 보인 것이 영화관람이며, 참여확대를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이 비용과 문화행사의 질이라는 결과와 동일³⁾하다.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특수한 욕구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본질적 욕구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문화복지의 질적향상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질적향상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해 볼 수 있다.

- FGI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이 제안한 사항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력 증진, 문화예술활동 기회확대,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문화나눔사업을 기획운영할 전문인력의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과 지원, 양성의 필요, 재능기부 만을 기대할수 없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환경 등이 언급된바 있다.
- 또한 문화나눔사업의 참여에 위와 같은 결과가 조stown 원인으로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장의 수요조사 결과에서는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직접적인 사업의 구성이나 내용보다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거나, 참여방법을 몰라서, 교통의 불편함 등 사업참여를 위한 부가적인 사안들에 대한 욕구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연예술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서도 비용확대, 컨텐츠의 수준과 함께 이러한 요인들이 나타났다.
- 문화나눔사업수행에 있어 수행기관을 중심⁴⁾으로 하는 홍보사업의 중요성이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FGI와 수요조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문화나눔사업의 참여를 위한 노력으로 접근성에 대한 고려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동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나 예술활동 참여에 무료교통이나 할인된 비용으로 택시를 활용할

3) 2014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 지난 1년 동안 분야별 예술행사 관람률은 영화가 65.8%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대중음악/연예 14.4%, 연극 12.6%, 뮤지컬 11.5%로 관람률이 높은 분야는 2012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행사에서 보았을 때 필요한 부분으로 34.2%가 관람비용을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25.9%,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고 18.7%, 관련 정보가 많아져야 한다고 10.2%순으로 나타나 문화예술향수에 대한 비용과 질이 관람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본연구의 수요조사 결과 : 참여경로의 대부분이 문화사업수행관련기관, 지방자치 단체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는 방법,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를 증가 시키는 방법 등 사업내용을 기획하고 구성할 때 함께 지원될 수 있는 제도⁵⁾적 기반마련이 함께 요구된다.

- 향후 문화나눔사업의 지속적 참여와 확대를 위한 컨텐츠의 질과 재미에 대한 문화나눔사업의 구성과 내용에 관한 고려가 요구된다. FGI와 수요조사를 통해 이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문화나눔 사업의 내용구성에 대한 조사와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자체가 과거 특수계층의 문화향유에 그치거나 일방적인 문화예술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을 통해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획 운영되어야만, 영화관람에만 그치지 않는 다양한 문화에의 참여확대와 향후 재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가족이나 아동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공연장에 함께 갈 수 없는 다른 가족들(예: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보육시설, 공연이용시간 등에 대한 문화시설의 변화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 보다 필요로 되는 지역,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지원방법 등 차별화된 서비스의 고려가 요구된다. 거주지역별로 문화나눔사업의 이용만족도와 참여의향을 보면 도시지역보다는 농산어촌지역으로 갈 수록 문화나눔사업의 참여만족도와 향후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지역일 수록 문화나눔사업의 효과가 높다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문화나눔사업의 지역적 분배정도, 서비스의 범위 차등화 등의 방안 등을 통해 보다 높은 욕구가 있는 지역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문화나눔사업들을 육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우선 수요조사결과에서 지역별로 참여한 컨텐츠의 만족도를 보면 공연, 전시관람, 전통예술, 시각예술, 문학 등 다른 사업에 비해 수도권에서 밀어질 수록 방방곡곡 문화공간이나 신나는 예술여행 등 찾아가는 문화나눔예술사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 문화나눔전달체계, 지원방식 등에 있어서 지역간 편차

5) 편의성을 고려한 영국과 대표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 Passport to Leisure Card(노인, 학생, 장애인, 실업자,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스포츠 파크 이용시 무료와 교육프로그램 할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 Travel Passes for People with a Disability(이동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Touring performance(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 The Arts Express Networking Project(예술활동 참여에 무료교통을 지원하는 서비스), Getting There Art Taxi Scheme(60세 이상 노인이 지역의 예술극장, 박물관, 미술관에 갈 때 보다 저렴한 할인가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Space for sport and arts(저소득층 문화예술활동 지원프로그램으로서 민간지역의 청소년들의 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의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Day Service(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사회, 태치, 재벌, 교육, 일자리 기회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제5장 결론 및 제언

를 고려한 사업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FGI에서는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여러 형태의 문화나눔사업의 종류들이 나타났지만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문화나눔사업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문화환경 조성부분에 있어 도시, 도농복합, 농산어촌 지역들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문화나눔사업의 서비스의 영역, 가맹점관리 및 개발, 이용방법에 차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장애유무에 따라 사용내용과 문화나눔사업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를 달리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수요조사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이 장애가 없는 집단에 비해 문화나눔사업의 향후 참여의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불편함은 다른 대상들 보다도 문화활동의 참여기회가 적은 것이 그 이유일 수 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집단의 경우는 국내 여행(관광)이나 스포츠 관람 등에 있어 장애가 없는 집단보다 향후의 참여의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가 있는 집단의 경우 공연장소의 접근성, 교통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나눔사업의 경우 문화컨텐츠 뿐만 아니라 문화이용환경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전용 관람석을 확대하여 보다 쉽게 좌석을 받고 할인까지 받도록 하는 Theater Access Project, 사회프로그램, 레저활동, 문화예술 교육 등 장애인들이 무료로 이용가능한 Day Service 등이 제도화 되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컨텐츠 개발과 문화시설들에 대한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노대명외(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박조원의(2011), 문화바우처 사업 법제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3. 박조원(2013), 문화 소비의 동기와 체험 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7(3):7-37.
4. 용호성(2012), 문화 바우처 정책의 쟁점과 방향, 문화체육관광부.
5. 정갑영(2005), 문화복지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 정무성(2011), 문화복지 정책과 문화나눔, 2011 문화복지, 문화나눔의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7. 정무성의(2012),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 욕구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 정무성의(2014),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연구
9. 정무성의(2015),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및 대상가구 추계연구, 산업통상자원부.
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
11. 양혜원의(2014),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 및 타당성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 2014 보건복지 통계연보 제60호, 보건복지부.
13.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14. 2012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
15. 2013 등록장애인현황, 보건복지부.
16. 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행정자치부.
17. 2015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계획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8. 참고 홈페이지
19. 우정사업본부 <http://www.koreapost.go.kr>
20.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현역병 입영현황
21. 국가통계포털 /kosis.kr

부 록

조사일시 2015 ____월 ____일

ID

2015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
수요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문화나눔사업> 수요에 대한 연구를 위한 조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나눔사업>의 내용별 이용자 특성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사업 계획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나은 <문화나눔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문화나눔사업>이 발전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통제처리 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문 의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 화 : 02-828-7212

팩 스 : 02-826-8675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89 숭실대학교 조판식기념관 745호(우편번호 : 156-743)

2015년 10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대학원

정 무 성 교수

응답자	응답지역	시(도)	구(군)
조사자	소속(이)기관		

부 록

I. <문화나눔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1.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나눔사업>입니다. 참여하신 사업의 만족도에 ✓ 해주세요.

문항 번호	사업명	사업내용	만족도					참여 비율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1	문화 누리 카드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개인당 연간 5만원의 문화누리카드 지급	도시 및 읍면 구입					
1-2			영화 관람					
1-3			국내여행(관광)					
1-4			스포츠 관람					
1-5			공연 및 전시 관람					
1-6	신나는 예술 여행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는 사업	연극 (연극공연, 뮤지컬, 마임,넌버벌, 인형극 등)					
1-7			전통예술 (국악공연,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등)					
1-8			음악 (오페라, 성악, 관현악, 동요, 합창, 중창 등)					
1-9	사랑 티켓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다원예술 (여러 예술장르가 융합된 프로그램)					
1-10			예술일반 (미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비보이 댄스 등)					
1-11	방방 곡국 문화 공간	민간 우수공연 및 문화기관 기획·공동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1-12			시각예술 (전시, 창작참여 등)					
1-13			문학 (시낭송회, 문학콘서트, 구연동화, 창작체험 등)					
1-14	생활 문화 공동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마을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워크숍 프로그램, 마을행사(축제지킴이, 미술,악기 등 예술배우기(교과)와 같은 문화예술활동 참여					

부 록

2. <문화나눔사업>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는지 ✓ 해주세요.

- ① 지역의 문화 및 복지 관련 기관을 통해서
 ②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③ 주위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④ 부모 등 가족을 통해서
 ⑤ 인터넷을 통해서
 ⑥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⑦ 기타()

3.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 해주세요.

- ①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②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③ 지역의 문화, 복지 관련 기관의 권유로
 ④ 자인(친구, 선생님)의 권유로
 ⑤ 부모 혹은 자녀 등 가족의 권유로
 ⑥ 기타()

4.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할 때 중요한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 중 2가지만 ✓ 해주세요.

- ① 비용의 적절성
 ② 프로그램의 수준
 ③ 문화행사의 기간 및 행사
 ④ 주최단체, 출연진의 유명도
 ⑤ 교통의 편의성
 ⑥ 편의시설(놀이방 등)의 구비 여부
 ⑦ 문화행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언론 보도
 ⑧ 복지기관장, 문화기관장 및 이웃들의 권유
 ⑨ 기타()

5.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항목 중 2가지만 ✓ 하여 주세요.

- 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②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③ 공연 및 전시의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④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⑤ 참여할 시간이 나지 않아서
 ⑥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⑦ 교통이 불편해서
 ⑧ 시설(편의시설 포함)이 열악하고 불편해서
 ⑨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⑩ 기타()

부 록

6. 향후 1년 이내에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귀하의 참여 의향에 ✓ 해주세요.

문화예술활동			향후 참여의향				
			전혀 없음	있는 편임	보통	높음	매우 높음
6-1	문화누리 카드	도시 및 일반 구입					
6-2		영화 관람					
6-3		국내여행(관광)					
6-4		스포츠 관람					
6-5		공연 및 전시 관람					
6-6	신나는 예술여행 · 사랑디켓 · 방방곡곡 문화공감	연극 (연극공연, 뮤지컬, 마임닌비법, 인형극 등)					
6-7		전통예술 (국악공연,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등)					
6-8		음악 (오페라, 성악, 관현악, 등요, 합창, 중창 등)					
6-9		다원예술 (여러 예술장르가 융합된 프로그램)					
6-10		예술일반 (마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비보이 댄스 등)					
6-11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6-12		시각예술 (전시, 창작참여 등)					
6-13		문학 (시낭송회, 문학콘서트, 구연동화, 창작체험 등)					
6-14		워크숍 프로그램, 마을캠프(축제)지원, 미술, 악기 등 예술배우기(교과)와 같은 문화예술활동 참여					

부 록

7. 공연예술 참여를 위해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지 √ 해주세요.

구분	전혀 필요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7-1 지역 내 공연시설 확충					
7-2 수준 높은 공연 제공					
7-3 재미있는 공연 제공					
7-4 수도권 공연단의 지방 순회					
7-5 찾아가는 공연					
7-6 해설 있는 공연					
7-7 사전 교육 후 관람					
7-8 공연 횟수 확대					
7-9 지원 금액 확대					
7-10 교통편의 제공					
7-11 공연 정보 제공					

부 록

II.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다음의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거나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인을 >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나이	만 ____세
3) 거주지역	① 도시 ② 도·농 복합지역 ③ 농산어촌
4) 최종학력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이상
5)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동거 ③ 기타(별거/이혼/사별 등)
6) 가구형태	① 1인 가구 ② 한부모가족 ③ 다문화가족 ④ 양부모가족 ⑤ 3대 가족 ⑥ 조손가족 ⑦ 기타()
7) 거주형태	① 주택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 ② 아파트 ③ 시설가주 ④ 기타 ()
8) 경제활동형태	① 무직 ② 공공근로 ③ 서비스 및 판매직 ④ 단순노무직(건설·경비·청소·배달 등) ⑤ 농·임·수산업 ⑥ 기타()
9) 가구생활여건	① 기초생활 수급자 ② 자상위계층 ③ 기타(일반 등)
10) 장애여부	유형 : ① 시각 ② 청각 ③ 신체 ④ 정신 ⑤ 발달 (정신지체 포함) ⑥ 기타 ()
<input type="checkbox"/> 장애없음	등급 :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⑥ 6등급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 록

다음의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거나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용 >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나이	만 ____세
3) 거주지역	① 도시 ② 도·농 복합지역 ③ 농산어촌
4) 본인 학력	① 초등학교 재학중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재학중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재학중 ⑥ 고등학교 졸업 ⑦ 대학교 재학 중 ⑧ 대학생 졸업
5) 가구형태	① 1인 가구 ② 한부모가족 ③ 다문화가족 ④ 양부모가족 ⑤ 3대 가족 ⑥ 조손가족 ⑦ 기타()
6) 거주형태	① 주택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 ④ 기타 () ② 아파트 ③ 시설거주
7) 가정(보호자)의 학력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이상
8) 가구생활여건	① 기초생활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타(일반 등)
10) 장애여부	유형 : ① 시각 ② 청각 ③ 신체 ④ 정신 ⑤ 발달 (정신지체 포함) ⑥ 기타 ()
<input type="checkbox"/> 장애없음	등급 :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⑥ 6등급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